백조로 변신한 동양계열사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6일 화요일 제3314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5일>

코스피 1978.25 (+8.57)

코스닥 691.19 (+4.77)

금리(국고채 3년) 1.58 (−0.02)

환율(원·달러) 1172.50 (−10.50)

"독도서 세월호 침몰한다면… "

시마네현 독도보고서 망언

독도관광 비판 정치 목적에 인도주의적 기본자세 저버려

韓 인명구조 시스템 조롱 해양오염 문제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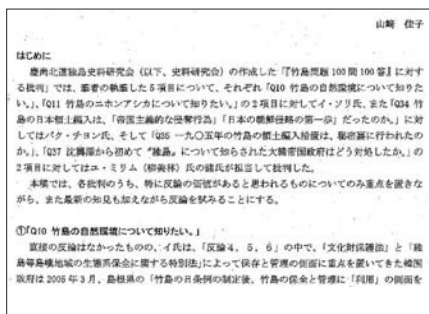
2005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날' 조례를 지정해 독도 도발의 선봉에 선 일본 시마네현이 최근 펴낸 독도 관련 보고서에서 독도판 세월호 참사를 운운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도주의마저 무시한 처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내용은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제3기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중 부록에 담겼다. 이 부록은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의 '독도문제 100문100답'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됐다.

'독도문제 100문100답'은 앞서 나온 연구회의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에 반박하기 위해 나왔다.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을 작성했던 연구회의 야마사키 요시코는 이번 부록에서 독도와 세월호 참사를 연결지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사이에 두고 논쟁을 주고 받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이다.

메트로신문은 국회도서관이 작성한 관련 번역본 전체를 소개한다. 번역본은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제공했다.

야마사키는 일본인들에 의해 독도 강치(바다사자의 일종)가 멸종됐다는 한국 측 주장에 반박하던 중 "작년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한국정부, 해양경찰의 미흡한 대응도 기억에 생생하다"는 말을 꺼냈다.

이어 "필자는 당시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좌초 시부터 TV보도를 지켜보았는데 상당수의 구조선이 보인데다 전원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안도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사태는 180도로 바뀌었으며 많은 고등학생들이 희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나이의 자식을 둔 부모로서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진심으로 애도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독도판 세월호 참사를 운운한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소속 야마사키 요시코의 보고서. /박홍근 의원실 제공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는 독도와 연결되면서 분위기가 일변했다.

야마사키는 "그런데 한국정부는 2005년 3월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의 대항조치로서 매일 약 800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이며 다케시마를 '이용'해 왔지만, 사고의 여파로 작년 방문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도 앞바다에서 약 20㎞거리인 세월호 침몰지점은 한국본토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다케시마는 진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섬에서 반경 10㎞를 넘어가면 2000~2500m의 수심을 지닌 대마해봉으로 둘러싸여 있어 5월부터 9월까지 날씨가 맑은 시기를 제외하면 해류가 매우 거친 지점"이라며 "한국정부는 과연 다케시마 주변에서 세월호 침몰과 비슷한 여객선 사고가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야마사키는 이어 독도의 해양오염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해당 사고의 교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데 실패하고 쓰레기 해양투기도 저지하지 못했다. 더불어 해양 쓰레기 회수예산을 깎아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 관광여객선과 이상한 퍼포먼스 집단의 도항(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을 계속해서 허가하는 것은 자국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우책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을 연결고리로 해서 독도판 세월호 참사 가능성과 독도 주변 해양오염 문제를 제기하는 교묘한 수법이다.

지난 8월 이 보고서를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국내외에 다케시마 문제를 강력하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영사관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던 우리 정부는 뒤늦게 보고서 문제가 불거지자 "지방정부 수준에서 도발하는 것에 일일이 반응하며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최악 지옥철은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 '염창역' 최고
혼잡도 200% 넘을땐 호흡곤란
안전사고·성추행 높아 대책시급

출근시간 최고의 '지옥철'로 9호선 급행열차가 꼽혔다.

출근시간인 오전 8~9시 9호선 급행열차의 최고 혼잡도는 233%에 달했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9호선 급행열차 1단계 구간(염창·당산·가양·여의도·노량진)의 오전 8~9시 평균 혼잡도는 203%로 나타났다. 염창역이 233%로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였다.

혼잡도는 열차 1차량 정원(158명)이 다 탔을 때를 100%으로 한다. 175%는 좌석 앞 중앙에 3열이 서있고 각 출입문 부근에 35명 정도가 서있는 수준이다. 225%를 넘을 경우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일 수 있다.

같은 시간 급행열차 혼잡도는 당산역 213%, 노량진역 205%, 여의도역 200%, 가양역 166% 등의 순이었다.

5개 구간의 한 시간 이른 오전 7~8시 혼잡도도 평균 206%에 달했다.

9호선 일반열차의 출근시간 1단계 구간 혼잡도는 평균 110%였으며 역시 염창역에서 18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산역은 148%의 혼잡도를 보였으며 가양역·여의도역·노량진역 등은 68~78%였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2013년 기준 가장 높은 혼잡도를 보인 지하철 구간은 2호선 사당역→방배역 구간으로 나타났다.

오전 8시 10분~8시 40분 사당→방배 구간의 혼잡도는 202%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대 혼잡도는 방배→서초 196%, 서초→교대 192%, 낙성대→사당 190% 등이다.

김상희 의원은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 9호선은 지옥철로 불릴만큼 혼잡도가 매우 심하다"며 "혼잡도가 200% 이상을 초과할 경우 승객들의 불편이 커지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성추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서울시는 9호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차량 증편, 급행 열차의 조정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The power of Youke! Commercial areas around station : the golden egg

유커의 힘! 역세상권 '황금알'

The station commercial area, where all the foreignerss are concentrated, is emerging as a golden egg business district since it forms a commercial district for 'seven-days a week'.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profitable real estate since Hongdae univ, Hapjeong, Youngsan, Itaewon, Myungdong and Shinsa station's rents increase.

According to a real estate (representative Lee Goo-bum), the average rate of rent increase in Hongdae univ. station has been over 43% for the past year.

With the popularity of Gyungridan-gil, the rent of Yongsan station commercial district was also increased by 35% compared to last year.

It is said that the Itaewon roadside malls are rented at 50 million~100 million of deposit and 3 million~5 million of rent.

The average increasing rate of the rents around Shinsa station that is popular with Garosoo--gil is now over 34%.

Thus, profitable real estate products are drawing great attention in the areas.

A property expert says "The areas that are popular among foreigners create 7days-a-week commercial district since the investment returns are high" "for this reason, there are so many investors and tenants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lead to a stable profit as well as an increase in investment value."

외국인이 몰리는 지하철 역세권이 '주7일 상권'을 형성하면서 황금알 상권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대역과 합정역, 용산역과 이태원역, 명동역과 신사역 등의 인근 상가 임대료가 상승하며 하반기 이 일대에 분양되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홍대입구역 인근 상권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평균 43%를 웃돌았다.

경리단 길 인기에 힘입은 용산 인근 이태원역 상권 임대료 역시 1년 전보다 평균 35% 가량 상승했다. 이태원 대로변 상가 1층 66㎡ 점포는 보증금 5000만~1억원에 월세 300만~500만원 수준이라는 게 인근 공인중개소의 전언이다.

가로수길이 있는 강남 신사역 일대 임대료도 평균 인상률이 34%를 넘어섰다.

이에 수혜지역 수익형부동산 상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많이 몰리는 곳은 투자수익률이 높아 주 7일 상권을 형성한다"며 "이러한 점 때문에 점포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나 임차인들이 많아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투자가치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정치

▲ **청와대**가 민경욱 대변인, 박종준 경호실 차장의 총선 출마 소식을 전하며 더 이상의 비서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판한 이후 불거진 청와대의 공천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의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공천특별기구 출범은 불발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권의 선거제도 논의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의 해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실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감 예산의 30%나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액수가 올해 상반기 800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선거범죄**로 인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 12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중앙지검은 환수팀을 꾸려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8억8000만원에 대한 환수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는 이상득 전 의원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포스코 특혜 의혹 관여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016년 달력이 벌써?' 5일 오전 서울 충무로 한 인쇄소에서 직원과 모델이 2016년 병신년(丙申年) 달력을 선보이고 있다. JW중외그룹은 4단 형태의 벽걸이용 2016년 달력을 약 6만부 제작해 병의원과 약국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직원 업무용 개인 컴퓨터(PC) 관리 서버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관제시스템은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킹은) 시민 안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출근시간 최고의 **'지옥철'**로 9호선 급행열차가 꼽혔다. 출근시간인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9호선 급행열차의 최고 혼잡도는 233%에 달했다.

▲ 우리나라 **치킨집**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의 프랜차이즈 통계(16개 업종)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치킨전문점 수는 2만2529개로 편의점(2만539개) 다음으로 많았다.

▲ 옛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이 대량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없어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양에 눈독 들이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미국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페이는 구형 카드 결제기에서 작동해 애플페이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 **LG화학**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린파트너십'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LG화학은 이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소득공제** 혜택에 힘입어 한때 최고 연 70% 성장률을 보이는 등 급성장해온 체크카드가 올해 15%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지난달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이달 들어 신한카드도 장기대출(카드론)과 단기 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증시에서 부당이익을 챙긴 '검은 머리 외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 제22호 **태풍** '무지개'가 국경절 연휴기간에 중국 남부연안을 강타하며 강력한 회오리바람으로 모두 6명이 숨졌다. 또 어선 수척이 좌초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된 상태다.

▲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초대형 **허리케인** 호아킨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최소 8명이 숨지고 많은 도로와 가옥이 유실됐다. 1000년만의 대규모 폭우로 기록될 전망이다.

▲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일으킨 책임자를 감옥에 많이 보내길 원했다며 금융회사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인색한 미국 사법 관행을 비판했다.

김포 vs 남양주 vs 하남 역세권 분양 빅매치

<김포도시철도> <지하철 8호선> <지하철 5호선>

역세권 아파트 분양에 3000만원 더 지불 용의
인구 유입·인프라개선 기대로 수요자 관심 ↑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뉴스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 분양대전이 시작된 가운데 하반기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의 역세권 단지 빅매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지하철 등 교통 수단이 많은 서울 시내 역세권과는 달리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신도시·택지지구는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라 역세권 단지가 들어서면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 인프라도 개선된다. 때문에 동일 신도시라 할지라도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청약 결과가 갈릴만큼 역세권은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상반기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6.0'는 KTX 동탄역 광역비지니스콤플렉스 내 역세권 단지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최고 청약경쟁률인 62.85대 1을 기록했다.

반면 동탄역과 거리가 약 2㎞ 떨어져 있는 '동탄2신도시사랑으로 부영1차'는 1순위 청약에서 1.39대 1을 기록했으나 3개 주택형을 마감하지 못했고 2순위까지 진행해 평균 2.69대 1로 순위 내 마감하는 데 그쳤다.

수요자들은 역세권에 대한 금전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다. 지난 9월 18일 리얼투데이가 오픈서베이를 통해 수도권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역세권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9%(569명)는 동일지역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역세권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라면 3000만원을 더 낼 수 있다고 답했다.

10월 공급 물량에 대한 관심도 높다.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는 반도건설과 한신공영이 역세권 빅매치를 벌인다.

반도건설은 한강신도시 구래동 Ac-03블록에서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5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구래역(예정)이 도보 내 거리에 있고 M버스 복합환승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남측으로는 한강신도시 일반상업지구와 대형 이마트,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있다. 약 10만 4000㎡의 한강신도시 호수공원과 가마지천이 인접해 주변 환경 또한 쾌적하다. 단지는 지하 2~지상 30층 6개 동 전용면적 96~104㎡ 480가구 규모다.

한신공영은 한강신도시Bc-8·9·11·12블록에서 '운양역한신휴플러스'의 분양에 돌입한다. 단지는 전용 59~84㎡, 924가구며 테라스하우스로 지어질 예정이다.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는 반도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맞붙는다.

반도건설은 다산신도시 B-6블록에서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를 분양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2·84㎡이하 물량으로 구성되며 1085가구가 공급된다. 2022년 개통 예정인 별내선 복선전철(8호선 연장선) 다산역(가칭·예정)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43번국도~강동대교 이용 시 서울 잠실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입지 여건 외에도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에는 다산신도시 최초로 단지 내 2층 규모의 별동학습관이 들어선다.

현대산업개발은 다산신도시 C-3블록에서 '다산신도시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22~29층 5개동 전용면적 84~97㎡ 467가구로 구성됐다. 2022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다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다산역 이용 시 잠실역까지 9정거장이면 도착이 가능하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마지막 역세권 단지가 분양 중이다. 롯데건설이 운정신도시 A27블록에서 분양 중인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는 이달 개통 예정인 경의선 야당역이 반경 500m안에 있다. 단지는 전용 59~91㎡ 1169가구 규모다.

하남미사강변도시에서는 효성과 우성건영이 주거형 오피스텔의 역세권 분양대결을 펼친다.

효성은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 2블록에 '미사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2018년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이 도보 5분 거리다. 연면적 13만여㎡에 지하 6층~지상 29층 규모로 조성된다.

지상 4층~지상 29층에는 전용 20~84㎡의 오피스텔 1420실, 지상 1~3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동첨단산업단지와 유니온스퀘어(2016년 예정), 엔지니어링복합단지(2017년 완공예정) 등이 인근에 들어설 계획이다.

우성건영은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 10-3블록에 '르보아리버 오피스텔'을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2018년 개통하는 5호선 미사역(5번출구)과는 도보로 5분 이내에 위치해 있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7층 1개동으로 상가 33실(1~3층), 오피스텔 336실(4~17층)규모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약 18㎡(280실), 23㎡(56실) 2개 타입으로 모두 원룸형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靑 "민경욱·박종준 외 총선출마 없다"

비서관 총선출마설에 종지부
공천개입 논란 차단 조치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대변인 박종준 경호실 차장

청와대가 5일 민경욱 대변인, 박종준 경호실 차장의 총선 출마 소식을 전하며 더 이상의 비서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판한 이후 불거진 청와대의 공천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세간에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간 공천전쟁 배경을 두고 청와대 비서관들의 대구 지역 출마설이 나돌았다.

이날 민 대변인과 박 차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인천이 고향이라 인천 연수구 또는 중구·동구·옹진군 출마가 점쳐진다. 박 차장은 충남 공주 출신이라 세종시 또는 공주시 출마가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두 사람 이외에 추가로 거취를 표명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 그런 것(청와대 참모 거취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겠다. 더이상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의 거취에 대해선 추측보도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신동철 정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대구 지역 출마는 없다는 선언이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이나 어떤 선거에도 중립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 위해서 더이상의 소모적인 추측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치권의 관심사였던 공천논란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송병형 기자 bhsong@

메트로 관제시스템은 폐쇄망… 北해킹서 안전

서울메트로 대표 "피해 서버·PC, 관제시스템과 관련없어"
하태경 의원 "방화벽 등 보안 인력 2명뿐… 대형 사고 우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직원 업무용 개인 컴퓨터(PC) 관리 서버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관제시스템은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킹은) 시민 안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5일 오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열차 운행과 관련이 있는 관제시스템과 업무망은 일체 연결이 없는 단독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서버와 PC는 행정 업무용이며 문건 역시 내부 업무 관련 자료"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 "사건 이후 외부 IT전문가를 채용하고 정보보안팀을 신설하는 등 자체 보안조직을 보강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7월 서울메트로의 'PC 관리프로그램 운영 서버' 등 서버 2대가 해킹을 당해 213대에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의 접속 흔적이 확인됐고 PC 58대는 악성코드에 감염됐으며 업무자료도 12건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매일 약 420만명이 이용하는 2000량의 지하철이 테러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셈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서울메트로의 해킹 의심 신고로 지난해 9월 1~5일 조사한 결과 PC 관리 프로그램 운영용 등 서버 2대가 해킹당해 PC 213대에서 이상 접속 흔적이 확인됐고 58대는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8월부터 조사에 나선 국정원 측은 서울메트로에 로그(log)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서버 접속 기록을 지난해 3~8월 6개월치만 확보했고 최초 해킹시점과 악성코드 최초 유포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해킹 시점이 지난해 3월 이전인 것이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중에는

서울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 모습. /뉴시스

지하철 운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관제소와 지하철 전력 공급을 맡은 전기통신사업소 등 핵심 부서의 PC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은 북한이 2013년 공중파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마비시키기 위해 쓴 'APT 방식'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표적으로 하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격으로 서울메트로의 각종 구성도나 임직원 명단 자료 등 서울메트로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국정원 조사 이후인 지난해 9월 17일부터 한 달에 걸쳐 업무용 PC 전체인 4240대를 포맷하는 등 비상조치를 내렸으며 지하철 운행과 관련된 신호 시스템은 별도 망으로 관리하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울메트로는 후속 조치로 지난해 9월 업무용 PC 4240대를 포맷 후 사용하도록 했고 보안팀 인력 보강과 더불어 보안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2013년 18만4578건, 지난해 37만713건, 올해 9월까지 35만188건 등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해킹 원인으로는 방화벽과 디도스 차단시스템,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등을 다룰 보안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서울메트로는 (서버상에) 이상 조짐이 일어나면 알려주는 보안관제시스템, 보안팀 자체가 없고 보안 담당 직원도 2명밖에 없다"며 "서울메트로 같은 중요한 조직에 보안 체계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호체계를 바꿔놓으면 지하철 충돌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이번에 전기 쪽(PC)도 장악됐는데 전기를 꺼버린다면 모든 게 급정지하고 암흑 속에서 서울 시민들이 고통을 겪는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우려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폴크스바겐 디젤車 쇼크에 정유·화학업계 '긴장'

亞·중동 설립 정유시설 위기 클린디젤 생산 이미지 실추
가솔린·나프타 수요 증가땐 석유화학업체 수익성 타격

리콜대수만 1100만대를 기록한 폴크스바겐그룹의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로 정유·석유화학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디젤 수요 감소가 가솔린·나프타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 가격 상승이 예상돼 석유화학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긴장은 '클린디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판매했던 대부분의 폴크스바겐 디젤 차량이 '배기가스 조작차량'으로 드러난 것이 원인이다. 또 독일 정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미국 시장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이뤄졌다고 발표하면서 조작 의혹이 벤츠와 BMW 등 자동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디젤차 위기론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 동안 정유 업체가 아시아·중동 등에 설립한 디젤 중심의 정유시설도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도 '클린디젤' 타이틀을 내걸고 이에 걸맞는 제품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마틴 빈터콘 폴크스바겐 전 CEO(최고경영자)가 고개를 숙인채 생각에 잠겨 있다. / AP통신

폴크스바겐 사태는 '클린디젤'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월스트리트가의 리서치 회사 번스타인은 폴크스바겐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의혹은 디젤차량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자동차 조사기관 LMC오토모티브는 현재 서유럽 자동차 판매의 53%를 차지하는 디젤차의 비중이 2022년에는 3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충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 디젤 차량 판매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가솔린·나프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나프타 가격이 업황과 관계없이 오른다면 석유화학업체들의 수익성에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유럽 내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면 유럽의 나프타 수출 물량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석유화학 제품 수요 변화에 따른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 변동과 무관하게 나프타 가격이 오를 수 있어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아시아 나프타 가격 안정에는 유럽 물량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은 1990년대 이후 디젤 차량 비중이 높아지면서 디젤을 순수입하고 휘발유를 순수출하고 있는 상황. 특히 유럽의 나프타는 주로 아시아로 수출되면서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을 줬다는 설명이다.

디젤차의 위기는 전기차의 기회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문제로 내연기관차의 한계가 부각됐다"며 "전기차 자체의 단점과 대중화를 위한 과제 등은 남아있지만 폴크스바겐 사태로 보급 활성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우선 폴크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여파는 곧바로 전기차 관련 업체 주가 상승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화학, 삼성SDI의 주가는 폴크스바겐 사태가 터진 9월 18일부터 이날까지 각각 11.93%, 8.62% 상승했다. 여기에 중국과 함께 최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가 더해져 전기차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 산업의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삼성증권은 9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전기차 판매량 증가뿐만 아니라 중국도 환경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전기차 시장은 더 커져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올해 3분기 판매량은 1만158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2020년까지 30만2000여대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 이니셔티브(EVI)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총 27만5104대로 전 세계 판매량(66만5000여대)의 39%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일본 10만8248대, 중국 8만3198대 등이 이었다. 한국은 3000여대(0.45%) 수준이었다.

폴크스바겐 사태로 연말까지 수입차 재고량은 8만여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차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면서 수입차 업체의 막대한 재고 판매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용기 기자 yonggi@

하나마나한 해외국감 '예산 먹는 하마'

국회 외통위 외유성 국감 논란
전체 국감 예산 중 30% 쏠려
시민단체, 화상국감 대체 주장

지난달 15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나경원)의 뉴욕·애틀랜타·시카고·보스턴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의 해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실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감 예산의 30%나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수준의 국감이라면 화상국감(화상통신을 이용한 국감)으로 대체해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국감은 지난해 외유 논란이 이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일 국회사무처의 국감 예산 분배내역 자료에 따르면 19대국회가 2012~1014년까지 3년간 국감을 위해 지출한 예산은 총 37억2730만원이다. 이 중 외통위 국감 예산은 10억7000만원이 넘는다. 전체 예산의 28.7% 수준이다. 이는 같은 수의 감사위원(23명)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3년간 국감예산(1억7500만원)의 6배가 넘는 규모다. 또 비슷한 피감기관수(30여개)를 가진 보건복지위원회의 3년간 국감예산(1억4300만원)의 7.47배 규모다. 외통위의 국감 예산 대부분은 여비다. 거의 99%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데 드는 여비가 국내 여비의 110배가 넘을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국감을 나가지만 감사내용은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NGO(비정부민간기구) 모니터단은 "재외공관 국감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본 결과 일본 대사관처럼 중요한 곳도 2012년과 2013년 국감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없었고, 다른 재외공관들은 굳이 현지에서 국감을 해야할 내용인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주미 한국대사관 국감에서는 '주미 대사관의 영사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바, 만족도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 2014년 주뉴욕 총영사관 국감에서는 '동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총영사관이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

의원들은 실제 국감보다는 이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했다. 모니터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해 감사대상인 재외공관까지 감사일정별로 최소 비행시간을 조사한 결과 외통위는 지난 3년간 최소 540시간을 비행했다. 정작 국감시간은 지난 3년간 181시간 34분에 불과했다.

부실한 감사내용까지 고려하면 '외유용' 국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외통위는 지난해 중국에서 공연관람 등으로 외유성 논란에 휩싸인 전력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시되는 국감과는 달리 언론의 감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감 내용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모니터단의 김대인 총재는 "재외공관 감사는 과다한 혈세를 사용하면서 시정요구 등 성과는 오히려 빈약하다"며 "다음 20대국회부터는 해외국감은 화상을 통해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만을 선정해서 해외현장국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감 공개원칙에 의한 인터넷 생중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北 포격도발 땐 전투기로 원점타격"

"전작권 전환 추진돼야"

이순진(사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5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경우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원점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기존 포격 대응에) 전투기를 이용한 적의 원점 타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이 "과거에 비해 큰 변화인 것은 아느냐"고 답변의 의미를 확인하자 "안다"고 답했다.

현재 전시작전권은 미군에 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미군의 동의 없이 자체 결심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가능하다. (미군의) 동의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시작전권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내세운 조건이 충족돼야만 전작권 전환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꽃 게 철(11월)을 맞아 특히 첨예하게 적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해에서 연평도 포격도발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은 현재 사드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석사학위논문에서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평가한 데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아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결국 "공인으로서 (5·16을 군사정변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다"고 했다.

/송병형 기자

김무성 vs 서청원, 공천룰 정면 충돌

서 "이젠 용서못해" 도발
김 "그만하자" 일단 자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의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공천특별기구 출범이 예정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엄밀히 말하면 서 최고위원이 도발했고, 김 대표가 맞대응하려다 자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모 일간지 1면 머리기사에 우선공천제 이야기를 왜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제는 고려할 수 있다는, 대표가 떡 주무르듯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옳다 그르다, 이런 쓸데없는 것을 부각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략공천의 폐해를 경험했기에 이를 없애고 정치적 소수자와 현저히 경쟁력 낮은 지역, 취약지역 같은 데에 우선추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설명을 했을 따름이다. 이게 그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까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헌·당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당론으로 정해진 상향식 공천,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준다는 약속만 지켜지면 싸울 일도 없고 다른 문제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의도적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그러자 서 최고위원은 "나도 공개·비공개 구분하는데, 김 대표가 솔직히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자주 한다"고 되받았다. 김 대표는 "그만 하자"며 서둘러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했다.

/송시우 기자 swsong@r

문재인, 朴 대통령에 새누리당 탈당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권의 선거제도 논의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최근 박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우리 경제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고 민생은 폭발직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거듭되는 권력싸움이 나라의 앞날을 더 암담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대의 대통령으로 되돌아가선 안된다. 내년 총선 공천과 미래권력을 향한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혁신이 왜곡돼선 안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권력싸움에 빠져 경제와 민생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가 하고 있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달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한다면 야당도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대표이사 편집국장 이장규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국민 절반, 공적연금 혜택 못 받는다

사각지대 49.3%…선진국 2배 넘어 노인층 비율 높아 대책 마련 시급

국민 절반이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10명 가운데 6명이 이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인순(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적연금의 가입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18~59세 인구 3299만4000명 중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가 49.3%(1626만600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말의 50.2%보다는 0.9%포인트 감소한 수치지만 선진국의 20%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잠재적 사각지대에는 비경제활동인구 1004만3000명(30.43%), 공적연

금 비적용자 53만6000명(1.62%),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57만1000명(13.85%), 국민연금장기체납자 111만8000명(3.39%) 등이 포함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2015 고령자통계(통계청)의 '공적연금 수급현황(65세 이상) 추이'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이 공적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인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14년 말 현재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39.6%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60.4%는 공적연금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공적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했다.

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200만 명, 비취업여성(전업주부)은 2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명수 의원은 임의가입 등을 장려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은 지역 가입자 843만9608명 중 54.3%(458만2612명)가 납부예외자일 정도로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정보 파악률은 37.9%(2015)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진 의원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정보 파악률을 높이고 지역가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檢, 한명숙 추징금 집행팀 구성

전두환 이어 두 번째 8억8000만원 강제환수

서울중앙지검은 5일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집행팀을 꾸려 환수작업에 돌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1672억여원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

공판부 산하 집행팀에는 검사 1명과 집행과 소속 수사관들이 배정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자발적인 추징금 납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팀 설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측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추징법)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압류 조치의 근거 법령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 3월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예금 2억2371만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000만원 등이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개인 채무도 3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 공개 이후 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속히 추징금 전액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질문에 답하는 이상득 전 의원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포스코가 티엠테크를 비롯한 협력업체 몇 곳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포스코 특혜 의혹, 이상득 "절대로 없다"

檢 피의자 신분 소환 일감특혜 수주 조사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포스코가 특정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익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은 측근 박모씨가 실소유한 업체 티엠테크 등이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특혜 수주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말 설립된 티엠테크는 이듬해부터 포스코로부터 제철소 설비 관리 업무를 집중 수주했다.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사무소장이던 박씨는 이 업체의 대주주로, 티엠테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 등이 2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상당액은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특혜 수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이 전 의원 측에도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준 대가로 포스코가 티엠테크에 일감을 집중 발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09년 국방부와 군이 고도제한 문제로 신제강공장 건설 사업을 중단시키자 이 전 의원은 갈등 조정에 나섰고, 결국 2011년 공장 건설이 재개됐다.

아울러 정준양 전 회장이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이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티엠테크 특혜 수주'가 대가성을 지닌 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하게 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티엠테크의 일감 수주와 신제강공장 건설 재개, 정 전 회장의 선임 등이 상관관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신제강공장 현안 해결과 티엠테크 일감 수주 사이에 명확한 대가관계가 성립하면 수뢰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관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이 전 의원 측에 불법적 이득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따져보기로 했다. 이득액이 크다고 판단하면 이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연미란 기자

'협력업체 뒷돈' 안강농협 前 이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5일 농협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물류업체 A사에서 2억1311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손씨는 A사 계열사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7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수십만원씩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2009년 농협 하나로마트 기흥물류센터가

평택물류센터로 이전하면서 물류대행 거래를 끊으려 하자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인 손씨에게 줄을 댔다. 손씨는 최 회장과 경주 안강초등·중학교 동문이다. 검찰은 손씨가 이권에 개입한 농협 협력업체가 더 있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인쇄업체 S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연미란 기자

호텔 투자의 결정판!

RAMADA

성공을 앞당겨라!

글로벌 기업 삼성·LG의 최대규모 산업단지 바로 앞!

지금까지 없던! 앞으로도 없을!
160조 삼성·LG효과 독점입지

국내외 바이어 및 기업 법인의 비즈니스 수요 폭증!

평택 송탄 라마다만의 특급 Premium 6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 조성
수원 사업장 2.8배 규모인 약 120만평, 100조원 투자규모 삼성전자 2016년 말 완공

진위산단 LG전자 30만평 확장
LG전자 진위 2산단에 입주공사 진행 중. 60조원 규모 약 5,700여 명의 고용효과 창출

강남 18분대 KTX 지제역 개통
수서역 18분대 고속철도 지제역 2015년 개통예정, 수도권 최고의 교통요지로 급부상

초대형 산업단지 완성·조성계획
평택 내 10개 산업단지가 완성. 현재 추진중인 12개 산업단지로 수요가 갈수록 급증

전국 부동산 상승률 1위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가치가 연속 상승한 유일한 지역, 치솟는 미래가치

세계 1위 호텔그룹 브랜드파워
전세계 7,380개 호텔과 60만개 객실을 보유한 세계 1위 호텔그룹 윈덤의 대표브랜드

모델하우스 OPEN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투자현황 자료: 삼성전자

항목	내용
부지 면적	289만㎡(약 87만5000평) 축구장 약 400개 넓이
투자 비용	15조6000억 원
생산유발 효과	41조 원
매출 효과	20조 원(2017~2020년)
고용창출 효과	15만 명

평택시 인구 추이
연말 기준, 단위 : 명
자료 : 평택시

	2010년	2015년 (예상)	2020년 (전망)
사회적 증가 (산업단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27만 2638	39만 6425
자연적 증가	43만 1827	44만 9404	46만 3844
합계		72만204	86만269

RAMADA

SAMSUNG

KTX 지제역

LG

1호선 서정역

1호선 송탄역

BUS 송탄시외버스 터미널

평택의 중심에 평택 송탄 라마다가 옵니다.

대한민국 최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뜨거운 땅!

| 최중심 입지 | 삼성전자산업단지 인근에 위치 비즈니스 수요 풍부, 평택고덕국제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 편리한 교통 | 송탄역에서 도보 5분거리, 송탄시외버스터미널 도보 1분거리로 편리한 대중교통이 확보된 쾌속교통망
| 메머드 상권 | 인근에 백화점과 복합여객터미널 등 메머드급 상업, 교통편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계속 확충 예정
| 초특급 시설 | 379 객실 규모 수도권 최고 수준의 특급호텔, 스카이풀장 등 서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대시설 서비스

동양계열사, M&A시장 미운오리서 '백조'로

대량 지분 보유 대주주 없어
동양네트웍스·동양 등 몸값↑

옛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기업인수·합병(M&A)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불과 몇달 전만해도 시장에서 외면받던 미운오리새끼 였으나 상황이 바뀐 것이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로 2013년 10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상장사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은 대량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없어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장사는 총발행주식 수 기준, 지분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의 최대주주 보유 지분은 각각 24.87%, 5.6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영권을 노린 주식 매집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실제 연초 670원이던 동양네트웍스 주가는 5일 2995원으로, 동양은 926원에서 3000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3월 회생절차를 마무리한 동양네트웍스는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불붙었다. 최대주주인 SGA와 10% 이상 주주인 KJ프리텍이 감자와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절대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없는 동양네트웍스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정보보안업체 SGA는 최대주주이지만, 보유 지분이 24.87%에 그쳐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그러자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KJ프리텍이 '경영 참여' 목적으로 지분 15.17%를 확보하며 맞불을 놨다. 동양네트웍스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고 KJ프리텍은 시장에서 지분을 늘리고 잇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양의 사정도 비슷하다. 동양은 최근 최대주주로 오른 유진기업의 보유 지분이 5.67%에 불과해 주인이 없는 상태나 다름없다.

동양은 동양시멘트를 삼표에 7943억원에 매각해 3000억원의 채무를 갚고 나면 약 5000억원의 현금자산을 가진 매물이 된다. 법원이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생 절차를 종결시키면 동양은 경영권 분쟁의 장이 될 수 있다.

최근 건설·시멘트·레미콘업체 몇 곳이 동양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도 국내 모 기업이 '큰 손' 펀드와 손잡고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 등 관련 기업들도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다. 최대주주 유진기업도 지분 매입 이유를 '투자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추가 지분 매입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놨다.

법원은 현재까지 동양의 회생절차 조기 종결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시장은 법원이 매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동양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미 현금자산 확보로 재무구조가 안정돼 정상화에 문제가 없고 대량 지분을 팔아야 하는 채권단과 같은 대주주도 없다는 이유다.

김종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동양은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영업구조를 갖춰 연내 회생절차를 졸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에서 지분 인수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왼쪽부터) LG화학 박준성 대외협력담당, 서울특별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학봉 모금사업본부장이 5일 서울특별시청 회의실에서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LG화학, 에코산업 기업변신 박차

지자체와 사회공헌 앞장
2020년까지 30억 투자

LG화학(대표이사 박진수 부회장)이 에코 산업에 앞장서며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손잡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섰다. LG화학은 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측에 따르면 그린파트너십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다. ▲태양광 친환경에너지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구성됐다.

태양광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지자체 소재 공원 등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발전기금을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청소년 복지시설 및 에너지 취약시설에 옥상녹화 및 단열재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사업이다.

LG화학은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와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7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LG화학은 2016년 상반기 중 서울시가 제공한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 기반의 '희망 그린 발전소'를 설치한다. 여기서 조성된 발전기금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는 단순히 일회성 물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투자한 태양광 발전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투자해 반영구적인 지원이 가능한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에너지경영시스템 성과평가제 도입은 그동안 LG화학이 펼쳐온 에너지 절감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에너지공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해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너무한 현대重 노조 "회사자산 팔아 임금 올려라"

적자에 무리한 요구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는) 주식과 부동산을 매각해 임금인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일 노조는 소식지에 '현대중공업 적자경영의 진실'이라는 글을 싣고 이같이 밝혔다. 회사의 '임금(기본급) 동결' 제시에 대한 반박이다.

노조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매도 가능 금융자산 규모는 4조5226억원"이라며 "이 중 현대오일뱅크 주식가치(장부가액)가 2조9547억원으로 가장 많고, 매각 가능한 부동산 자산도 5797억원이나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계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이 매각 가능한 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을 팔면 4940억원의 차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며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인상을 들어주고도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진단했다.

회사는 7월 27일 12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임금 동결,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안전목표 달성 격려금 100만원, 임금·직급체계 및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사내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 노사는 이번 주 임협 집중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한화, 최신 CNC자동선반 기술 선봬

'밀라노 공작기계 박람회' 참가

㈜한화가 5~10일 이태리에서 열리는 '밀라노 공작기계 박람회'(EMO 2015)에 참가한다.

한화는 1977년 7월 공작기계 사업을 시작해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해왔다.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한 복합형 자동 선반과 터렛형 자동선반, 진원도·원통도 1μm(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 이내 가공이 가능한 슬리브가공기를 국내최초로 개발한 바 있다.

한화는 이번 전시회에 38mm 미만의 자동차부품, 의료기부품, 전기전자부품, 유압부품 등 소형부품을 24시간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위스 턴 타입 CNC 자동선반인 XDⅡ 모델과 XE모델, 터렛형 자동선반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연철 한화 대표이사는 "38년간 쌓아온 정밀기계 제작기술로 국내외 유수의 고객들과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EMO전시를 통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 국내 1위 업체를 넘어 글로벌 CNC자동선반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에어부산

에어버스 항공기 신규도입

에어부산(대표 한태근)이 항공기 1대를 신규 도입했다.

5월 도입한 항공기는 에어버스사의 A321-200 기종(195석)이다.

이달 말부터 증편 예정인 일본 후쿠오카와 오사카, 베트남 다낭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11월 중순에도 항공기를 1대 추가 도입한다.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총 1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현재 보유중인 보잉 기종 항공기 5대를 모두 반납하고 에어버스 기종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사측은 내년 상반기 말부터 에어버스 기종의 항공기로 기재 단일화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삼성페이, 애플페이 보다 낫다”

美 언론의 호평 잇따라
WSJ ‘애플페이 뛰어넘었다’
포춘 ‘신용카드 디지털 버전’

삼성페이 사용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미국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애플의 ‘애플페이’보다 뛰어나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지난달 29일자 ‘애플페이가 안 되는 곳에서도 삼성페이는 된다’는 제목의 리뷰 기사에서 “삼성페이는 구형 카드 결제기에서 작동해 애플페이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WSJ은 삼성페이의 마그네틱 보안전송(MST) 기술 방식에 대해 ‘왜 진작 그런 해결책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며 범용성을 높인 점에 주목했다.

경제지 포춘은 ‘삼성페이가 애플페이나 안드로이드페이보다 뛰어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페이는 신용카드의 디지털 버전으로 실제 지갑을 대체함으로써 애플페이나 안드로이드페이보다 쉬운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여러 정보기술(IT) 전문 매체도 삼성페이가 미국 현지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점쳤다.

테크인사이더는 “스마트폰을 일반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삼성페이를 체험해보니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평가했고 야후테크는 “삼성페이는 시중에서 가장 널리 쓰일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누구도 이 수준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썼다.

기즈모도는 “모바일 결제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라면서 “삼성페이가 지금까지의 어떤 서비스보다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호평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에 삼성페이를 출시한 삼성전자는 7대 도시를 돌며 프로모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스틴을 비롯해 댈러스, 애틀랜타,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고 현지 가맹점들과 연계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기아차 ‘파킹클래스’ 참가자 모집

초보·女운전자 주차 강습

‘파킹클래스’에서 여성운전자가 전문강사로부터 주차 교육을 받고 있다. /기아차 제공

기아자동차는 초보·여성운전자를 위한 주차 강습 프로그램 ‘제2회 드라이빙 클래스: 두근두근 파킹 클래스’ 참가자를 23일까지 모집한다.

드라이빙 클래스는 기아차 멤버십 브랜드 ‘기아레드멤버스’가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프로그램이다.

11월 7일 2회 부산 벡스코에서 지방고객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 드라이버와 ▲전면주차 ▲후면주차 ▲평행주차 등 다양한 주차 상황에 대한 이론·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오전·오후조 각 20명씩 2차수에 걸쳐 운영된다.

이론교육은 레이서 권봄이씨가 진행을 맡아 주차요령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실습교육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실습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개인별 실습시간이 확대됐다.

사전 추첨행사를 통해 선발된 2명의 참가자들의 경우 권봄이 레이서의 1:1 실습 강의를 받을 예정이다.

기아차는 이번 드라이빙 클래스가 강화된 실습과 실생활에 필요한 운전교육을 통해 여성·초보 운전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드라이빙 클래스 참가를 희망하는 레드멤버스 고객들은 5일부터 23일까지 기아레드멤버스 홈페이지(http://red.kia.com)와 모바일 사이트(http://m.red.kia.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용기 기자 yonggi@

‘4계절 쾌적하게’ 냉난방 겸용 에어컨 출시

삼성 ‘Q9000’ 신모델 2종
초절전 디지털인버터 탑재

삼성전자 모델이 5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활가전동 프리미엄하우스에서 삼성 ‘스마트에어컨Q9000’ 냉난방 겸용 신모델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5일 ‘스마트에어컨Q9000’ 냉난방 겸용 신모델 2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냉방·청정·제습 성능에 난방 기능까지 갖춰 4계절 내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삼성 ‘스마트에어컨Q9000’은 봄에는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청정 기능으로 공기 질에 대한 염려를 덜어주며, 강력한 냉방과 제습 능력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난방 기능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과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 특히 훈훈한 실내 온도 유지는 물론 삼성 ‘스마트에어컨Q9000’만의 공기 청정 기능인 ‘PM2.5 필터 시스템’을 통해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에도 항상 깨끗하고 건강하게 실내 공기를 지켜준다.

여기에 초절전 디지털 인버터를 탑재해 10월 1일부로 강화된 냉난방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에도 1등급을 달성했다. 각각 조작할 수 있는 3개의 바람문 중 1개만 운전시 최대 80%까지 전기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스마트에어컨Q9000’ 냉난방 모델은 뛰어난 냉방과 청정 성능에 전기세 부담을 줄인 난방 기능까지 갖춰 4계절 내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에어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삼성 ‘스마트에어컨Q9000’ 냉난방 모델은 냉난방 면적 75.5㎡(냉방)·49.7㎡(난방)·52.8㎡(냉방)·41.7㎡(난방)에 출고가는 각각 509만9000원·299만9000원이다.

/조한진 기자

LG전자 모델이 LG트윈타워에서 시스템에어컨 세계 최초로 습도까지 감지하는 LG전자 ‘멀티브이 슈퍼5’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습도 감지’ 똑똑한 시스템에어컨

LG ‘멀티브이 슈퍼5’ 출시
실내 적정온도 자동 조절

LG전자는 시스템에어컨 ‘멀티브이 슈퍼5’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멀티브이 슈퍼4’ 대비 에너지 효율을 11% 높이면서 최대 용량은 20마력에서 26마력까지 늘리고, 설치 면적은 최대 43% 줄였다.

시스템에어컨은 대형 실외기 1대에 여러 대의 실내기를 연결한 방식으로 공간활용과 에너지효율이 탁월해 학교, 사무실, 상가, 아파트 등에 주로 적용된다.

멀티브이 슈퍼5는 시스템에어컨 세계 최초로 습도까지 감지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실내기와 실외기에 각각 센서를 내장해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고 습도별 적정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조절한다.

습도 감지 기능은 습도 변화가 많고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는 기간에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해 전기료 부담을 줄여준다.

멀티브이 슈퍼5는 사물인터넷과 연계한 스마트 기능도 탑재했다. 깨끗한 공기에 대한 고객 요구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황사는 물론 초미세먼지, 유해세균, 악취까지 걸러주는 슈퍼공기 청정 시스템도 적용했다.

멀티브이 슈퍼5는 에너지 효율에 따라 각각 슈프림, 프리미엄, 고효율 한랭지 모델로 나뉜다. 전(全) 모델은 영하 25도의 혹한 기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조한진 기자

한국토요타

프리우스 구매 고객에 300만원 주유권 쏜다

한국토요타는 이달 토요타 하이브리드 글로벌 누적 800만대 판매 돌파를 기념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리우스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300만원의 주유권이나 48개월 무이자 할부(선수금 30% 조건)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100만원의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과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후 취등록세 감면(최대 140만원)을 비롯해, 다양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년·2만5000km 범위 내 주행 중 타이어가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신차 출고 시와 동일한 타이어로 교체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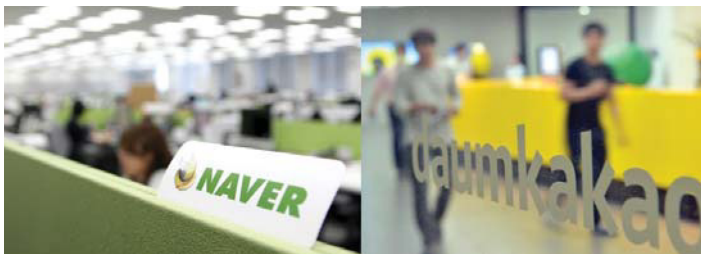
다른 모델의 프로모션 조건은 전국 공식전시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네이버·카카오, 3분기 실적 희비 엇갈려

네이버, 주력 광고사업 회복·라인 매출 성장세
카카오, 신규 게임 매출 4분기 이후에 나타나

IT업계 라이벌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3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네이버는 주력 광고사업이 살아나고 지난 2분기에 뒷걸음쳤던 모바일 메신저 '라인' 매출도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카오는 3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고 하반기 신규 게임 매출과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사업 전개로 인한 효과가 연말께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SK증권 등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국내 광고 사업이 모바일 광고 매출 성장과 함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일본 광고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키워드 검색광고와 디스플레이(배너) 광고,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한 광고 사업을 각각 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네이버의 3분기 전체 광고 매출 규모를 5782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분기(5586억원)에 비해 3.5%, 전년동기(4978억원)에 비해서도 10.8% 증가한 수치다.

지난 2분기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라인 매출은 게임이 살아나면서 전체 매출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중소상인용 대상 마케팅 계정 '라인@(앳)'이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분기 라인 추정 매출은 2536억원으로 전분기(2339억원)와 전년동기(2085억원)보다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네이버(왼쪽)와 다음카카오 사무실.

LIG투자증권도 네이버의 3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15.2% 늘어난 8066억원, 영업이익은 5% 증가한 1984억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카카오의 3분기 실적은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시장의 연말 성수기에 프렌즈팝, 백발백중, 웹보드 게임 등의 신규 게임 매출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과는 4분기 이후에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주력인 광고 매출이 주춤하겠으나 게임과 전자상거래 매출이 살아나면서 전체 매출은 전분기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금융투자는 3분기 다음카카오 광고 추정 매출을 1477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분기(1507억원)보다 2% 가량 줄어든 수치다. 반면 게임 매출(549억원)과 커머스 매출(144억원)은 각각 전분기보다 10억원 가량 소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SKT-CJ E&M, 방송콘텐츠 공동 제작

드라마 '처음이라서'

SK텔레콤과 엔터테인먼트 기업 CJ E&M이 영상 콘텐츠 프로그램 공동 투자·제작과 커머스 분야 제휴 등을 통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척에 나선다. 양사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는 모바일 영상콘텐츠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너지 창출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CJ E&M은 5일 양사가 공동 투자하기로 한 5개 프로그램 중 첫 작품인 드라마 '처음이라서'의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이미 양사는 지난 8월 하반기 CJ E&M이 제작 예정인 총 5편의 프로그램에 대해 50%씩 공동 투자키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사는 10월 7일 첫 방영되는 온스타일의 오리지널 드라마 '처음이라서'와 10일부터 연이어 방송되는 바디 스타일링 프로그램 '더 바디쇼' 론칭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공동제작한 콘텐츠 5편을 모두 방영할 예정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CJ E&M은 제작한 드라마, 쇼 프로그램 등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유선·무선 각각의 플랫폼 특성에 맞게 제공하고, 콘텐츠와 관련된 패션·뷰티, 헬스, 음식 문화 등의 커머스 생태계를 적극 육성한다.

SK텔레콤은 향후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고유의 양방향성, 적시성을 접목한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 투자를 지속 확장해 나감으로써 최근의 모바일 미디어 활성화 트렌드를 적극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SKT, 노키아와 재난통신망 기술 공동개발

SK텔레콤, NOKIA 재난통신기술 공동 개발
중소기업 글로벌 상생 협력 강화

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재난통신망 기술 공동개발 협약식에서 김장기 SK텔레콤 국가안전망 TF장(왼쪽)과 앤드류 코프 노키아 한국지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GCSE 상용화 수준 목표
MCE 소프트웨어로 구현

SK텔레콤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노키아와 재난통신망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사업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망 핵심기술인 모바일 방송 서비스기술(eMBMS) 기반의 실시간 그룹통신기술(GCSE)을 연내 상용화 수준까지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eMBMS는 LTE무선망을 통해 대용량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대규모 사용자에게 일괄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GCSE는 일대다 방식의 실시간 통화가 가능한 채널 구조로, 일대일방식과 비교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폭이 좁아 최소한의 망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그룹통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수 현장요원이 밀집한 재난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

양사는 GCSE의 글로벌 표준화와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 eMBMS지원을 위한MCE기능을 기지국에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요 글로벌 제조사(노키아, 에릭슨, 알카텔루슨트 등)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MCE를 별도로 구축하는 기존방식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기대된다"며 "그동안 SK텔레콤은 국내 중소기업과 재난망 사업과 관련하여 PTT솔루션, eMBMS솔루션, 재난망 플랫폼,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 등의 분야에서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앞장서왔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KT, 여성인재 활용 선도기업 프로젝트 개최

KT가 민관협의체인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TF'에서 진행하는 제2회 선도기업 상호 방문 프로젝트를 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기업과 주요 기관의 인사담당 임원 30여명이 참석해 기업 간 양성평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공 사례 벤치마킹을 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KT는 여성 직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특성화된 제도를 설명하며 직접 경험하고 임원으로 성장한 여성관리자의 사례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옥경화 IT기획실 상무는 KT의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등 문화를 소개했고 이선주 홍보실 CSV센터 상무는 여성이 행복한 KT CSV 활동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여성일자리와 창업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과 보육관제 서비스, '올레 똑똑(어린이 전용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등 IT기업의 특성을 살린 상용서비스도 소개했다. /정문경 기자

KT '2015 프레지던트컵' 주관 통신사로 선정

KT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15 프레지던트컵'의 주관 통신사업자로 선정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CC에서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대회 동안 통신 서비스를 전격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는 미국 PGA 투어의 주도로 1994년 출범하여 매 2년마다 열린다. 지금까지 미국, 호주, 남아공, 캐나다에서만 개최됐다. 아시아에서 대회를 여는 것은 2015 프레지던트컵을 개최하는 는 한국이 처음이다.

KT는 이번 대회에서 광케이블, 무선랜, 라디오·TV 중계 방송 시스템 등 유무선 인프라를 구축했다. 인터넷, WiFi, 전화, 국제방송회선 등 약 1000회선을 제공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언론매체, 대회관계자 등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체크카드, 성장한계 직면

최고 연 70% 성장률서 올해 15% 밑돌 듯
잇따른 소득공제 변경·상품 수익성 떨어져

소득공제 혜택에 힘입어 급성장해온 체크카드가 성장한계에 직면했다. 한때 최고 연 70% 성장률을 보였던 체크카드는 올해 15%를 밑돌 전망이다.

5일 KB금융연구소가 내놓은 '한국 체크카드 시장의 성장과 최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체크카드 결제 시장은 지난 2005년 7조8000억원에서 2007년 19조원, 2010년 51조7000억원, 2014년 112조8000억원으로 9년 만에 15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KB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체크카드 사용 규모가 작년보다 14% 성장한 128조6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145조9000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체크카드 사용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연간 성장률은 둔화 추세다.

체크카드 사용 실적은 지난 2010~2012년 3년간 해마다 20~70%대 급성장해왔다. 하지만 2013년 12.4%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20%대를 간신히 회복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에는 15% 미만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률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훈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기준이 지나치게 자주 변경되고 내용 자체가 복잡해 소비자 입장에서 제도의 정확한 숙지가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관련 세법은 2000년 공제율 10%에서 이듬해 20%로 확대되고 2006년 다시 15%로 삭감됐다가 다시 25~50%로 확대되는 등 변경을 거듭해왔다.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증가할수록 대기업 계열 카드사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체크카드 성장 둔화의 한 요인이다.

정 연구원은 "2007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돼 수익은 감소하고 있지만 부가서비스 등 관련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부분의 체크카드 상품 수익성이 마이너스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 계열 전업 카드사는 체크카드에서 유발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은행 사업이 없다"며 "이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는 체크카드 발급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청년희망펀드' 가입한 송해 IBK홍보대사 송해 IBK홍보대사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청년희망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제공

금감원, '검은 머리 외국인' 27명 조사

외환거래법 위법 혐의
부당이득 가능성 염두

금융감독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 상의 신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세운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통해 외국자본으로 눈속임하는 한국인투자자를 말한다.

이들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홍콩과 룩셈부르크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 45개를 설립한 뒤, 외국인으로 가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내국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있다.

혐의자들은 외국인이 기업공개(IPO)에 참여할 때 증거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 기관투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IPO에 참여해 물량을 배정받는 등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 투자가 추출 모형을 활용해 혐의자 27명을 적발, 이들 대부분이 소액 개인투자자로 IPO 시장에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조종이나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자수익을 올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혐의자 19명에 대해 대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8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외국인투자자 등록을 취소하고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중 '고위험 조세피난처'에서 투자한 사람(법인 포함)은 8169명이다. 이들 지역에서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액은 7월 말 현재 47조3000억원에 이른다.

/김보배 기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681억1천만 달러로 8월 말(3천679억4천만 달러)보다 약 1억8000만 달러 늘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외환보유액 소폭 증가… 규모순위는 7위

두달 연속 감소했던 외환보유액이 9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세계 순위는 다시 7위로 밀려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9월말 외환보유액은 3681억1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유가증권이 3343억4000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17억7000만 달러 줄었으나, 예치금이 240억8000만 달러로 20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특별인출권(SDR)은 34억6000만 달러로 2000만 달러 줄었고,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은 14억4000만 달러로 7000만 달러 감소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달과 같았다.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브라질에 밀려 세계 7위로 한단계 내려앉았다. 지난 4월 6위로 올라선지 5개월 만이다.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3조5574억 달러)이었다. 이어 일본(1조2442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6688억 달러), 스위스(6038억 달러), 대만(4248억 달러), 브라질(368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차기태 기자 folium@

신한카드, 장기·단기 대출 수수료 내린다

내달부터 현금서비스 0.3p↓

신한카드가 장기 대출(카드론)과 단기 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신한카드는 지난 1일부터 카드론 최고 금리를 24.9%에서 24.7%로 0.2%포인트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는 현금서비스 최고금리를 26.94%에서 26.64%, 최저금리를 6.44%에서 6.14%로 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카드론 최저 금리는 변함없이 6.3%다.

지난달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카드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신한카드도 인하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현대카드는 이달 중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폭을 결정하기로 했고 삼성카드도 이달 안으로 카드대출 최고금리, 최저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 수준으로 떨어져 조달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아울러 카드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아 금융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태 기자

교보생명, 보험료 부담 낮춘 '교보CI보험' 출시

교보생명은 해지환급금 적립 방식을 바꿔 보험료 부담을 낮춘 '내 마음 같은 교보CI보험'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CI보험은 사망,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중대질병을 진단받거나 중증치매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병에 걸리면 가입 금액의 80%를 치료비로 지급한다.

아울러 해지환급금을 미리 확정된 예정이율로 쌓아 보증하는 기존의 종신보험이나 CI보험과 달리 해지환급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하는 방식을 도입, 보험료를 7~19% 낮췄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시중금리에 따라 바뀐다.

/차기태 기자

정유화학株 "반갑다! 국제유가 반등"

LG화학·롯데케미칼·SK이노베이션 등 강세
증권가, 수급개선에 3분기 실적 '양호' 전망

정유·화학주가 국제유가 반등과 3분기 호실적 전망에 일제히 상승했다. 정유·화학업종은 전 분기 탄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유가 불안 등에 주가 상승세를 반납하고 급등락을 이어왔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따라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유가 상승을 부추기면서 정유·화학주가 수혜주로 떠올랐다.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LG화학은 전 거래일 대비 4.16%(1500원) 오른 28만8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LG화학은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 외국계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장중 한때 29만20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롯데케미칼은 전일보다 2.43%(6500원) 상승한 27만3500원, 한화케미칼은 2.57%(550원) 오른 2만19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SK이노베이션은 5.85%(6000원) 급등해 10만8500원, S-Oil도 5.77%(3600원) 오른 6만6000원을 기록했다. 금호석유는 업종 내 가장 큰 상승폭인 8.83%(5000원) 상승한 6만16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밖에 대한유화(2.11%), SKC(2.51%), GS(2.66%), OCI(0.37%), KCC(0.47%) 등도 일제히 올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보합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대표 수혜주인 정유주와 화학주에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

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79% 오른 배럴당 45.54 달러로 장을 마쳤다. 이에 따른 정유업체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정유·화학주는 지난 8월 말 유가 폭등 당시 동반 상승했다가 9월 초 유가 급락 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유가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도 국제유가 상승 소식에 금호석유, 대한유화, 한화케미칼 등이 일제히 오르면서 화학 업종 상승을 주도한 바 있다.

3분기 어닝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 정유·화학 업종에 대한 실적 전망도 밝다.

황유식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3분기는 유가 급락과 중국 증시 불안, 미국 금리인상 이슈 등에 어느 때보다 불리한 시기"라면서도 "화학업체는 대체로 중국 등 석유화학 제품 수요 위축으로 직전분기 대비 절대 영업이익은 낮아졌지만 이전의 영업이익과는 차별화된 고수익이 지속되면서 전 분기를 제외하고 수년래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연구원은 이어 "정유업체의 경우 3분기 유가 급락으로 재고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다만 분기 후반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정제마진이 확대 중이고 4분기 정유업의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WTI는 기타 유종에 비해 낮은 가격대를 형성했으나 최근 가격이 상승하면서 두바이유와 가격 격차가 줄고 있다. 이에 따라 WTI를 사용하는 미국 정유사 원가는 상승하는 반면 두바이유를 사용하는 아시아 정유사는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황 연구원은 "3분기 유가 저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북미 대비 원가율 하락,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정제마진 회복 가능성이 주가 상승 요인"이라며 롯데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 등 국내 정유 3사를 최선호주로, 한화케미칼, SKC, 코오롱인더스트리, SK이노베이션 등을 차선호주로 제시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올해 외국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순매수 업종, 화학 최다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팔고 현대모비스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달 30일 현재 8774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분기에 3조1978억원을 순매수한데 이어 2분기에도 5조3250억원을 사들였으나 3분기 들어 7조6453억원의 주식을 쏟아냈다.

월별로는 2~5월까지 4개월 연속 순매수하다 6월부터 매도로 전환, 9월까지 4개월 동안 총 8조6950억원을 순매도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업종은 화학(1조9382억원)으로 나타났다. 운수장비(1조1567억원)와 금융업(1조926억원)도 순매수 규모가 컸다. 반면 전기전자(-2조749억원)와 유통업(-1조370억원), 음식료(-6249억원)에서 집중적으로 내던졌다.

종목별로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조7495억원어치 팔아 가장 많이 처분했다. 이어 신세계(-5442억원), 이마트(-4317억원), 아모레G(-3626억원), KT&G(-2992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현대모비스는 7536억원 순매수했고 LG화학(7378억원), 한국전력(6666억원), 삼성생명(5904억원), NAVER(5085억원) 등도 외인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코스피시장에서 기관은 올해 4조8466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반대로 1분기 2조9863억원, 2분기 5조9127억원 순매도했으나 3분기 들어 4조524억원 사들이며 매수세로 돌아섰다.

개인은 1분기 1조4308억원 내던진 이후 매수 전환해 2분기 1조6551억원, 3분기 3조961억원 사들여 올 들어 총 3조3474억원 순매수했다.

한편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8725억원, 5412억원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7883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1분기 2209억원, 2분기 814억원, 3분기 4860억원 연속 순매도하며 매도 규모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보배 기자

<외국인 순매도·순매수 상위 종목(9월 30일)>

(단위: 백만원, %)

순위	순매도			순매수		
	종목명	금액	등락률	종목명	금액	등락률
1	삼성전자	1,784,852	-14.54	현대모비스	853,624	-1.91
2	신세계	544,225	30.66	LG화학	737,765	57.73
3	이마트	431,740	13.55	한국전력	666,580	14.75
4	아모레G	362,587	63.33	삼성생명	590,380	-15.11
5	KT&G	299,187	46.52	NAVER	508,486	-27.95

한국거래소, 위안선물 및 배당지수선물 거래개시 한국거래소가 5일 중국 위안선물과 배당지수선물의 거래를 개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홍영진 대우증권 본부장(왼쪽부터), 강기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이주한 이베스트투자증권 상무, 김성락 한국투자증권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ETF·ETN 성장비전 발표

상장 심사기간 45일→20일로 단축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상장 문턱이 낮아지고 해외 상품이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심사 기간 단축, 상품 다각화 등 공급 확대와 중복 상장 허용, 거래대금 요건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주 골자로 하는 ETF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해외상품 확대를 위해 해외 발행 상품의 국내 상장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ETF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TF와 ETN은 기초 지수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구성해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품이다.

두 상품은 구성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ETN의 경우 신용위험과 만기가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ETF·ETN 상품 공급 확대를 위해 상장심사 기간이 45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맞춤형 지수와 테마형 ETF, 일간 수익률의 역 2배를 추종하는 방식의 인버스 ETF 등 상품군도 다양해진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 동일 지수 상품의 중복 상장 제한과 거래대금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그간 중복 상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된다. 그간 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던 제한도 없어진다.

운용과정에서는 기초 지수 산출기준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며, 현물 지수 상품일 경우에도 장내 선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괴리율 평가 기준이 강화되고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간 LP에 적용되던 괴리율 평가가 종가에서 장중 기준으로, 비중도 2배로 변경된다. ETF 상품 분류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비되고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2016년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 ETF가 도입되는 데 따라 해외 상품 상장과 운영에 관한 방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베트남 지수, 중국 국채 등 ETF 시장에 해외 상품을 확대, 해외에 상장된 ETF를 국내 상장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 1조원 미만인 외국계 증권사가 외국 본사를 보증인으로 두고 ETN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차기태 기자 folium@

FashionN
매주 목요일 밤 9시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view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배후수요 탄탄 '기업도시 수혜지' 분양 봇물

충주·천안·아산·거제·김포 등 하반기 전국서 8500가구 공급
실수요자·투자자 쌍끌이 인기

하반기 기업도시·산업단지 수혜지역에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이 지역은 직장인 배후 수요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에게까지 관심을 받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는 충남 천안과 아산시 일대는 9월까지 신규 분양한 15개 단지 중 12곳이 순위 내 청약을 마치며 80%의 높은 청약 성공률을 기록했다.

10월에는 이 일대를 비롯해 강원과 경남 등 지방 기업도시와 산업단지 일대에 8500여 가구 물량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대림산업은 충북 충주기업도시 2블록에 지하 1층~지상 20층 19개동 전용면적 59~84㎡ 1455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충주' 분양을 준비 중이다. 충주기업도시에는 현대모비스와 코오롱생명과학 등 15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고 2017년까지 27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 두정동 35-2번지 일원에는 전용 59~84㎡ 952가구로 구성된 '두정 아이시티'가 이달 중 공급된다. 11월에는 인근 충남 아산탕정지구 복합2·3블록에서 전용 59~84㎡ 51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천안불당 파크푸르지오' 분양이 예정돼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 등이 입주한 아산탕정플레이시티와 천안 2·3·4 일반산업단지가 배후수요다. 이외에도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연말까지 2만가구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4분기 충청권에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28곳, 2만3630가구다. 충남 14곳에서 1만887가구가 공급돼 가장 많고 ▲충북 9곳 8542가구 ▲대전 3곳 2355가구 ▲세종시 2곳 1846가구 순으로 예정돼 있다.

롯데건설은 이달 강원 원주기업도시 10블록에서 전용 59~84㎡ 1243가구 규모의 '원주 롯데캐슬 더퍼스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옥포·죽도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인 경남 거제시 상동동 110번지 일대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거제' 전용 84~141㎡ 1041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가 이달 중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Ac-07a블록에서 'e편한세상 한강신도시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74~84㎡ 807가구 규모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올 4분기 기업도시·산업단지 인근 주요 분양예정 단지

위치	단지명	총가구수	전용면적(㎡)	공급시기	기업도시/산업단지
충북 충주	e편한세상 충주	1455	59~84	10월	충주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충주산업단지
충남 천안	두정 아이시티	952	59~84	10월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 천안2·3·4일반산업단지
충남 아산	천안불당 파크푸르지오	510	99	11월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 천안2·3·4일반산업단지
충남 서산	e편한세상 서산테크노밸리	567	59~74	10월	서산테크노밸리
강원 원주	원주 롯데캐슬 더퍼스트	1243	59~84	10월	원주기업도시
경남 거제	힐스테이트 거제	1041	84~141	10월	죽도국가산업단지, 옥포국가산업단지
경기 김포	e편한세상 한강신도시2차	807	74~84	10월	양촌·학운산업단지, 한강시네폴리스
경기 평택	자이더익스프레스2차	1459	59~113	11월	삼성고덕산업단지
대구 중구	대구대신 e편한세상	467	59~84	11월	서대구산업단지

SK건설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SK건설 제공

SK건설, 의왕 부곡가구역 재개발 수주

2850억 규모 2020년 9월 준공

SK건설(대표 최광철·조기행)은 5일 2850억원 규모의 경기 의왕시 부곡동 '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지하2층~지상29층 아파트 12개동 165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018년 3월에 착공과 분양이 이뤄지며 2020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가깝고 영동고속도로·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외고와 의왕고 등이 있으며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부곡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한화건설, 이달 말 '광교상현 꿈에그린' 분양

전용면적 84~119㎡ 639가구

한화건설(대표 최광호)은 이달 말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62번지 광교신도시 아파트 '광교상현 꿈에그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8개동, 전용면적 84~119㎡ 639가구 규모다.

세대 타입은 전용면적 ▲84㎡A 520가구 ▲84㎡B 84가구 ▲89㎡ 8가구(저층특화) ▲92㎡ 16가구(저층특화) ▲119㎡ 11가구(저층특화 복층구조)로 구성된다. 총 세대수 대비 약 95%가 전용 84㎡ 이하다.

광교상현 꿈에그린 조감도. /한화건설 제공

LH, 10년 임대주택 2942가구 일괄매각

미분양 등 매입임대주택 대상 2017년까지 1만가구 매각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가 2017년까지 10년 임대주택 1만가구 매각을 추진한다. 10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인 미분양·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주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0년 매입임대주택 4291가구를 매각한 데 이어 올해 2942가구 일괄매각을 추진한다. LH는 최근 10년 임대주택 일괄매각을 위한 금융주관사(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매각 대상 10년 임대주택은 전국에 있어 특정지역에 몰려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H가 자산을 계속 소유한 채로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만 이전해 유동화를 하는 '회계상 북오프(Book-off)' 매각구조다.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잔여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이 보장되며(임대조건은 2년 단위로 5% 이내에서 인상 가능), 임차인은 잔여임대기간이 끝나면 우선 분양전환 권리를 가진다. LH와 협의가 된다면 해당 임대주택들은 임대한 지 5년 후인 2018년부터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

금융구조는 SPC(특수목적회사), 신탁,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다양한 형태를 제안할 수 있다. 이처럼 LH가 10년 임대주택을 일괄매각하는 것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상길 기자

국토부, 아파트 하자판정 개정안 행정예고

외벽균열 0.3㎜ 이하라도 누수 땐 하자 인정

제기능 못하는 CCTV도 하자 20일간 예고… 내달 초 시행

앞으로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를 넘지 않더라도 누수를 동반하거나 철근 배근 위치에 균열이 생기면 하자로 인정된다. 주택·주차장법이나 설계도서가 정한 대로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CCTV 기능이 너무 낮아 전체·주요부분 식별·조망이 어려우면 하자로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 뒤 11월 초 시행할 전망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외벽의 허용균열 폭이 0.3㎜ 미만이라도 누수 동반, 철근 배근 위치 균열 등은 하자로 인정된다. 미장과 도장 부위의 미세균열과 망상 균열이 미관상 지장 초래 시 하자로 보도록 했다. 그동안은 콘크리트 허용 균열을 0.3㎜ 이상만 규정했으며 균열 폭 0.3㎜ 이하의 미세균열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이슬 맺힘)가 발생하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처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와 결로 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상태가 확인될 때는 하자로 인정한다.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고무판인 풍지판 등 시공 상태 불량이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 하자로 보도록 했다. /박상길 기자

"국민 소비생활 만족도 뚝… 양극화 심화"

한국소비자원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발표

만족도 63.8점… 제주·서울 높고 경남·충북 낮아

65.2% "나는 중산층"… "중산층 이하" 생각 소비자 ↑

자신을 중산층 이하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양극화 지수는 올해 1994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해 소비생활의 양극화 정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생활의 경험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5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소비계층을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을 각각 상·하로 나누어 6단계로 구분해 파악해 왔다.

조사 결과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65.2%로 2013년 62.5%에 비해 2.7%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중산층 상'은 3.0%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산층 하'는 5.7%포인트 올랐다. 소비생활의 양극화 정도가 심해진 셈이다.

최근 1년간 경험한 소비생활 전반의 만족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63.8점으로 나타나 2013년 만족도 71.6점에 비해 7.8점 낮아졌다. 이는 소비생활에서 기대와 요구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소비분야별로는 식생활, 의료, 문화·여가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각각 66.5점, 64.2점, 64.0점이었다. 반면 경조사지원, 뷰티·헬스, 금융·보험 순으로 낮아 각각 59.1점, 60.6점, 61.2점이었다. 경조사지원서비스는 2013년에 이어 올해도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 서울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경남, 충북 순으로 낮았다. 제주와 서울의 경우, 식·주·의생활·의료분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남과 충북은 소비분야 대부분의 만족도 점수가 낮았다.

소비생활 분야 전반에서 연간 어느 정도로 문제를 경험하는지 '소비자문제경험률'을 측정한 결과 평균 59.6%로 나타나 100명 중 약 60명은 연간 최소 1회 이상 소비자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품질대비 비싼 가격이 25.5%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정보 부족 12.6%, 품질불량 11.9%, 부당 표시·광고 10.6% 순이었다.

소비생활 분야별 소비자피해 경험률은 생활 5.7%, 의생활 5.4%, 주생활 2.6%, 의료서비스 2.5%, 정보통신서비스 2.3% 순으로 높았다. 식생활과 의생활 등 구매빈도가 높고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 소비 분야에서 소비자피해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순영 소비자시장연구팀 팀장은 "주생활,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과 같이 만족도가 낮고 피해 경험이 많은 분야는 소비자정책 수립 시 우선 순위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충북 등 일부 지역 소비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고 피해 경험률은 높아 지방소비자행정 강화와 소비자역량 증진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블랙프라이데이' 오픈마켓도 돌입

옥션·지마켓, 2~4일 매출 전년비 37% ↑

장소 한계없어 오프라인보다 효과 기대

오픈마켓 업체들이 5일부터 '블랙프라이데이'에 본격 돌입한다.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오프라인 마켓들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는 다르게 오픈마켓 업계들은 성공적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장담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대표 변광윤)가 운영하는 옥션과 G마켓은 타 업체들보다 빠른 2일부터 기획전을 시작했다.

옥션은 11일까지 옥션 내 입점한 8대 유통사와 함께 '2015 옥션 가을 정기세일' 기획전을 연다. 매일 4개의 상품을 특가에 판매하는 '올킬 특가 코너'와 함께 각 유통사별 인기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또 브랜드 세일 기획전을 준비해 인기 브랜드 상품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G마켓은 블랙프라이데이 특별관을 7일까지 운영하며 11일까지 9개 유통사와 함께 '슈퍼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매일 오전 10시 각 유통사별 10~15% 할인 쿠폰을 지급해 9개 제휴 유통사 인기 브랜드 상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유통사별 구매 합산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을 G캐시로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도 함께한다.

이베이코리아에 따르면 옥션과 G마켓이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시작한 2일부터 4일까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신장했다.

5일부터는 11번가와 인터파크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합세한다. 11번가(대표 서진우)는 14일까지 일자별로 가을 시즌 테마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가을패션·혼수상품·나들이상품·가을레포츠·브랜드패션 등 매일 12개 주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노출한다. 기획전 상품들은 최대 50%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T멤버십이나 11번가 마일리지를 활용하면 추가로 11%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파크(대표 이기형)는 7일까지 장르별 도서 30종을 정가의 30% 가격에 선보인다. 다만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어 특별 구성 상품에 한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인 만큼 블랙프라이데이의 효과도 오픈마켓과 모바일마켓이 더 클 것"이라며 "장소라는 한계가 없어 고객들이 더욱 쉽게 블랙프라이데이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

홈플러스 마더케어, 아기 건강위한 '프리미엄 쿨맥스 매트리스'

홈플러스(사장 도성환)는 홈플러스 마더케어 매장(서울 강서점·영등포점·잠실점·부천 상동점·세종점) '프리미엄 쿨맥스 매트리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프리미엄 쿨맥스 매트리스는 쿨맥스 소재로 세균과 곰팡이 등의 유해물질 성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크기는 가로 70㎝, 세로 140㎝며 가격은 19만9000원이다. /홈플러스 제공

내년 담뱃세, 직장인 근소세와 비슷

<12조 6084억>

납세자연맹 "현 재정시스템 불공평"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세금이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 담뱃세 예상액이 12조6084억원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가 내는 근로소득세 12조7206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검증 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총급여액이 513조원이고, 이들 중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 1577만5942명(98%)의 결정세액이 12조720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3년 기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물린 소득세(7조6639억원)와 부동산 자산 보유세(9조5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정은미 기자

G마켓

'스테이지 시즌7' 개최

G마켓(대표 변광윤)은 내달 4일 오후 8시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고객 초청 콘서트 '스테이지(STAY G) 시즌 7'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스테이지는 G마켓이 2011년부터 진행한 온라인쇼핑 업계 유일의 브랜드 콘서트다. 올해 행사에는 블락비, B1A4, 에이핑크, 여자친구 등의 아이돌그룹이 출연할 예정이다.

G마켓은 콘서트 응모권을 100원에 판매하는 '100원딜'을 진행하고 3500명을 추첨해 콘서트 티켓(1인2매)을 증정한다. 이달 25일까지 하루 한번 응모권 구매가 가능하며 당첨자는 28일 개별 공지한다.

롯데면세점

희귀병 시각장애 아동 지원

롯데면세점(대표 이홍균)은 이달 15일 시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시각장애 아동에게 점자책을 전달한다고 5일 밝혔다.

총 367명의 아동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점자책이 전달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전자책 전달에 앞서 이날 국립 서울 맹학교에서 시각장애아동 점자책 전달식을 가졌다.

위메프

'베이비&키즈 페어' 진행

위메프(대표 박은상)는 이달 9일 오전 10시까지 '제1회 위메프 베이비&키즈 페어'를 진행하고 인기 유아 브랜드의 500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위메프 베이비&키즈 페어에서는 하루 3번 '오늘의 타임딱'이 진행된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 6시에 유아용품·패션·완구제품을 정상가 대비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한정수량 판매한다.

LG생건, 뷰티 편집숍 '투마루' 오픈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신규 브랜드 '투마루(TOMARU)'를 선보이며 뷰티 편집숍 '투마루 스테이션'의 1호점인 이대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투마루는 국내산 자연 원료를 그 지역 사람들의 비법에 주목해 담아낸 신규 브랜드다. 강원도 원주의 어린밀싹 일액을 함유한 수분영양 라인, 충청남도 홍성의 으름 열매를 함유한 초보습 영양 라인 등 40여 개 품목을 선보인다. 가격은 2만~4만원대다.

투마루 스테이션은 투마루와 더불어 '케어존', 'CNP차앤박화장품', '더마리프트' 등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와 색조전문 브랜드 '코드(CODE)', 헤어케어 브랜드 '실크테라피', 팩 전문 브랜드 '디어패커' 등의 다양한 브랜드를 함께 판매한다.

이달 16일 건대 2호점을 열 계획이며 홍대, 강남 등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연내 10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네파 "활동성·보온성 높인 스파이더 재킷 입어보세요"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대표 박창근)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신개념 경량다운 '네파 스파이더 재킷' 출시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스파이더 재킷은 상대적으로 추위를 많이 느끼는 몸판은 보온성이 높은 헝가리 구스 다운 소재를 사용하고 움직임이 많은 팔과 옆면 부분은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늘어나는 포웨이 스트레치 기능의 폴리스판 니트 소재를 적용했다. /네파 제공

망고식스, 한류 인기에 호주 진출

망고식스(대표 강훈)는 지난 2일 호주 현지 기업 '카페 망고식스 오스트레일리아'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망고식스는 중국, 미국, 몽골,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등 총 6개국에 진출하게 됐다.

회사 측은 최근 호주 내 카페 시장이 소규모 자영 매장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맞춰 호주에 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범대진 카페 망고식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표는 "망고식스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했고 특히 호주 내 아시아인에 대한 마케팅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인재 채용 팔 걷은 중견그룹

오비맥주, 글로벌 인재 찾기 나서

오비맥주(대표 프레데리코 프레이레)는 글로벌 본사인 AB인베브와 함께 글로벌 경영 연수(GMT, Global Management Trainee)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글로벌 경영 연수는 젊은 인재를 선발해 10개월간 글로벌 실무교육을 통해 전 세계에서 뽑힌 인재들과 함께 회사의 문화와 전략을 공유한 뒤 실전 부서에 배치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자격요건은 2016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경력 2년 미만의 졸업자로 원활한 영어 의사소통과 해외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19일(월)까지다. 접수방법은 AB인베브 글로벌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하면 된다.

이랜드그룹, 글로벌 ESI 인턴 공개채용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은 5일 글로벌 ESI 인턴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ESI는 단계별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랜드그룹의 전략기획본부다. 채용 분야는 패션·유통·외식·호텔·레저·건설 등 각 사업 부문의 전략기획과 컨설팅이다. 대학교 4학년 1학기 이상 재학 중이거나 휴학중인 학생을 포함해 기졸업자,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동원그룹, 하반기 대졸신입 150명 채용

동원그룹(회장 김재철)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150여 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동원그룹은 동원엔터프라이즈, 동원산업,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등 9개 계열사에서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R&D, 생산, 물류 등 다양한 부문의 인재를 채용한다. 2016년 2월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발과정은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및 에세이 평가, 1차 실무면접, 2차 인성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정운호 대표 해외원정도박 혐의

네이처리퍼블릭 공격경영 제동

연내 상장 제2도약 물거품
국내외 추진사업 차질 우려

화장품 브랜드숍 네이처리퍼블릭이 정운호 대표(51·사진)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해 말 대신증권을 상장 대표 주관사로 선정해 올해 말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상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이며 계획된 사업들도 차질이 우려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30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정 대표는 마카오 카지노에 수수료를 주고 VIP룸을 빌려 이른바 '정킷방'을 운영하던 국내 폭력조직을 끼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40억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은 지난 몇 달 전부터 불거졌다. 그동안 회사 측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강력 부인해 왔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번 검찰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해 도박 혐의 대부분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제출된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을 검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저가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설립자로 더 유명하다. 그는 2003년 설립한 더페이스샵을 2년 만에 업계 1위로 만든 뒤 LG생활건강 등에 매각해 1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정 대표는 2010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네이처리퍼블릭을 미국과 중국 시장에 연달아 진출시키는 등 사세를 키우며 화장품 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며 외형 확장에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정 대표의 이번 도박 혐의로 네이처리퍼블릭이 받는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올해 연말에 예정됐던 상장에 제동이 걸렸다. 주관사 측과 네이처리퍼블릭 실무진은 상장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11~12월께 상장은 어렵게 됐다는 게 업계 평가다.

문제는 상장을 계획해 놓고 공격적으로 벌여 놓은 사업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 전 세계 12개국에 10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상장을 통해 마련되는 자금을 대부분 해외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공을 들였지만 상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적잖은 자금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매장도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달에는 서울메트로의 역구내 화장품 전문매장 2건 임대차 입찰에 참여해 모두 낙찰을 받았다. 서울메트로와 운영권 계약을 완료한 네이처리퍼블릭은 수도권 지하철 1~4호선 57개 역사 내 68개 매장을 3년간 운영키로 하고 현재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낙찰 받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가 제시한 입찰금액인 A구역 99억원, B구역 94억원에 대해 네이처리퍼블릭은 각각 50% 이상 높은 162억원과 149억원을 써내 비싸게 낙찰받았다.

경쟁사인 에이블씨엔씨의 미샤를 밀어내고 알짜 상권을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무리한 입찰금액은 부메랑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처리퍼블릭이 정 대표 주도로 국내외적으로 성장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제2의 도약을 준비했지만 지금 네이처리퍼블릭 상황으로는 연내 상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너도나도 치킨창업… 전세계 맥도날드 보다 많다

2013년 치킨전문점 2만529개
호프집 등 포함땐 3만개 훌쩍

중기청 '자영업 동기' 실태조사
전체 82.6% "생계유지" 꼽아

우리나라 치킨집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의 프랜차이즈 통계(16개 업종)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치킨전문점 수는 2만2529개로 편의점(2만539개) 다음으로 많았다.

통계청이 집계한 치킨전문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표가 대상이다.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더욱 늘어난다.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주판매품목이 치킨이면서 호프집 등 타업종을 병행하는 곳까지 합치면 치킨집은 3만개를 훌쩍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치킨전문점 수는 10년간 연평균 9.5% 늘어나 약 3만6000개에 달한다.

이 연구소는 당시 KB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을 상대로 치킨전문점 현황을 분석했다.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기본적인 토대로 닭강정, 불닭 등 치킨을 주판매업종으로 하는 사업체를 더했고 닭갈비, 찜닭, 삼계탕, 닭 꼬치 등을 파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KB경영연구소의 분석대로라면 한국의 치킨집은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3만5429개·2013년)보다도 많다.

한국에서 치킨집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으로 치킨전문점을 많이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50세 이상 자영업자들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보다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내몰린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청의 실태 조사(2013년)에서 자영업으로 뛰어든 동기에 대한 질문에 '생계유지 위해서(다른 대안이 없어서)'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82.6%에 달했다.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자영업을 시작한 비율은 2007년 79.2%, 2010년 80.2% 등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한세드림, 창사 첫 월매출 100억 돌파

유아동복 기업 한세드림(대표 이용백)은 창사 이래 최초로 월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한세드림은 15년 전통의 아동복 브랜드 컬리수의 콘셉트 리뉴얼과 유아 패션 시장에서 모이몰른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5% 매출 상승하며 지난 9월 기준 월 매출 110억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한국관광공사는 아이돌 스타 닉쿤을 태국 내 한국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태국서 한국관광 붐 조성

관광公, 韓관광대전 성료
가수 닉쿤 홍보대사 위촉
동계관광 매력 홍보 총력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2~4일 태국 방콕 시암 파라곤 쇼핑센터에서 태국 시장의 회복을 목적으로 '2015 태국 한국문화관광대전(Korea Culture & Travel Festival)'을 개최했다.

태국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오기 위한 이번 행사엔 지자체, 여행사, 항공사,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국내·현지 65개 기관이 참여했다. 사흘 동안 약 5만여명이 방문해 한국관광 붐을 조성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한국의 동계관광 인프라를 적극 홍보해 동계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알렸다.

관광공사는 태국 출신인 2PM 소속 닉쿤을 태국내 한국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첫날인 2일 개막식에서는 닉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와 KBS 예능 프로그램 출발 드림팀의 특별 녹화·콘서트를 진행했다.

4일에는 빅스의 콘서트·토크쇼가 개최했다.

이 외에도 넌버벌 공연인 점프, 드럼캣과 태권도 시범단 K-타이거즈 공연을 비롯해 한식, 웨딩, 미용 등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 체험 행사를 펼쳤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K-pop을 비롯한 한류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여전히 높아 한류를 활용한 행사를 기획했다"며 "한국이 아시아 최고의 동계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오리온, 에버랜드에 '매직 쿠키 하우스' 짓는다

장애물 체험형 어트랙션 '과자의 집' 모티브 제작

오리온(사장 이경재)은 9일 에버랜드와 함께 만든 테마파크 어트랙션 '매직 쿠키 하우스'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제과업계에서 제품과 테마파크 어트랙션을 연계해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리온 제공

매직 쿠키 하우스는 어린이를 위한 장애물 체험형 어트랙션으로 동화 속 마녀가 사는 과자의 집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초코파이·고래밥·젤리밥·초코송이·닥터유 키즈 쿠키 등 다양한 오리온 과자 조형물 등으로 꾸며진 공간을 지나며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리온은 매직 쿠키 하우스 앞에 고래밥의 인기 캐릭터인 고래 '라두'를 형상화한 부스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기명 오리온 마케팅총괄이사는 "매직 쿠키 하우스는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 소통 채널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오리온 제품으로 만들어진 동화 속 과자의 집이 아이들에게 꿈과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GS샵, 블랙프라이데이 '매직 박스' 이벤트

최대 80% 할인상품 선봬

GS샵(대표 허태수)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을 맞아 이달 13일까지 '매직 박스 이벤트'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벤트에서는 기존에 상품마다 붙는 할인 쿠폰과는 별도로 7%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매직쿠폰(1인당 최대 3만원)이 제공된다.

해당 쿠폰은 가전과 일부 서비스 상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사용 가능하다.

또 7일까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특별관'을 별도 운영해 매일 특가 할인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관에서는 최대 80%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김성현 기자

에이스침대 '에이스 에비뉴' 대전점 오픈

국내 최대 명품가구 멀티샵

에이스 에비뉴 대전점 조감도. /에이스침대 제공

에이스침대(대표 안성호)가 5일 대전 서구 용문동에 명품가구 멀티샵 '에이스 에비뉴'(ACE AVENUE) 대전점을 열었다.

서울지점, 롯데 월드 타워점에 이어 세 번째 복합 가구매장이다.

에이스 에비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명품가구 멀티샵으로 에이스침대 제품은 물론 세계적인 명품 가구 브랜드 제품구입을 할 수 있다. 또 유럽가구 브랜드 제품은 현지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규모는 에이스침대 대전 사옥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 2개층으로 1644㎡다.

에이스침대는 에이스 에비뉴 대전점 오픈을 기념해 이달 한달간 기념품과 구매 금액에 따른 사은품 제공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김성현 기자 minus@

레스모아 '가을 슈즈 대전' 최대 30% 할인

금강제화의 신발종합전문점인 레스모아(대표 김정훈)는 5일부터 한달간 가을 슈즈 대전을 열고 최대 30%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스모아는 이 기간 캐주얼 전품목을 1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캐주얼 슈즈 2켤레 구매 할 경우 20%, 3켤레 구매 시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품목으로는 영국 캐주얼 슈즈 브랜드 클락스의 시그니처 아이템 '데저트 부츠'와 '러거', '왈라비' 등이 있다. 또 캐주얼 슈즈 브랜드 '로버스'의 정통 옐로우 워커 스타일 '브라바', 스니커즈 '비스타', 로퍼류 등이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이디야커피 '메이트 희망기금' 지원자 모집

커피브랜드 이디야커피(대표 문창기)가 5일부터 2015년 '이디야 메이트 희망기금' 하반기 지원자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디야 메이트 희망기금은 이디야커피 전국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디야 메이트'를 대상으로 연간 2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기금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디야 메이트라면 연령과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며, 13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자기소개, 매장 근무 체험 수기, 가맹점주의 추천사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근속일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결과발표는 내달 26일 이디야 공식 홈페이지(www.ediya.com)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에 김승철 이화여대 의료원장

김승철(58·사진)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대한산부인과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2017년부터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김 의료원장은 부인암 분야 권위자로 대한부인종양학회 상임이사와 대한산부인과학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유선준 기자

star bag

‘순정’ 크랭크업

배우 **김소현·도경수·연준석·이다윗·주다영** 등이 주연을 맡은 영화 ‘순정’이 지난달 17일 크랭크업했다.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애틋한 첫사랑과 다섯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내년 상반기 중 개봉 예정이다.

건축영화제 홍보대사

배우 **최윤영**이 오는 29일 개막하는 제7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영화제 관계자는 "매번 새로운 연기로 신선함을 안겨주는 배우 최윤영의 모습이 영화제의 추구 방향과 같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라드로 컴백

가수 **박보람**이 오는 8일 신곡 ‘미안해요’를 발표한다. 5년 만에 발표하는 발라드 신곡이다. 소속사 측은 "박보람의 음악적 성장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첫 예능 MC 도전

걸그룹 투애니원 멤버 **산다라박**이 정규편성된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으로 예능 프로그램 MC에 첫 도전한다. 산다라박은 "고정 MC가 처음이라 우선 기분이 정말 좋다.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울 가득한 새 앨범

듀오 **투빅**이 6일 자정 네 번째 미니앨범 ‘리턴 투빅(Return 2BiC)’을 발표한다. 10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보다. 투빅 만의 소울과 감성을 끌어올린 팝 발라드 곡 ‘지금처럼 사랑할게’로 활동한다.

“주연으로 극 이끌어보고 싶어요”

드라마 ‘어셈블리’ **김서형**

배우 김서형(43)은 스스로의 말처럼 평소에도 말하는 투가 거칠다. 연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갈증이 쌓여있는 탓이라고 말한다. 1994년 KBS 16기 공채 탤런트로 무명생활을 보내다 드라마 ‘아내의 유혹’의 성공으로 국민 악역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지만 오히려 독이 됐다. 악역 출연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샐러리맨 초한지’, ‘기황후’ 등의 선 굵은 악역을 기대한 캐스팅 제의가 줄을 섰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어셈블리’는 그런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김서형은 극중 국민당 대변인이자 비례대표 초선의원인 홍찬미 역을 맡아 호연했다. 홍찬미는 백도현(장현성)의 최측근이자 최인경(송윤아)과 앙숙이었지만 후반부에 진상필(정재영)의 조력자로서 딴청계를 이끄는 인물로 활약했다. 김서형은 이번 역할로 악역 이미지에서 벗어나 따뜻한 카리스마를 보여줬다.

"늘 했던 연기가 아닌 제 평상시의 모습을 담을 수 있어서 (연기적으로) 해소가 많이 됐어요. 즐겁게 하다 보니까 얼굴도 더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저에겐 정말 고마운 작품입니다. 홍찬미를 보내는 것보다 ‘어셈블리’를 보내는 게 아쉬울 정도에요."

드라마 ‘개과천선’ 이후로 만 1년 만에 브라운관 복귀작인 ‘어셈블리’는 김서형에게 캐릭터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전작들보다 복잡 미묘한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본에 보이지 않는 단순함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죠. 입체적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사실 정치가란 배역 자체가 도전이었어요. 정치이야기는 어렵잖아요. 다행히 작가님이 하고픈 이야기가 잘 전달된 것 같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제대로 그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방송 때는 배우 모두 다 뜨거웠습니다."

21년이나 연기 생활을 한 김서형이지만 연기에 늘 목말라있다. 어느덧 40대에 접어들어 배역의 한계에 늘 부딪힌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 보다 큰 배역을 맡길 원한다. 더 늦기 전에 욕심을 내고 싶은 것이다.

"작품 가운데 제 위치를 두고 주연과 조연 사이에서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의 것들을 이겨내보고 싶어요. 누구나 한번쯤은 경쟁해보고 싶잖아요. 제가 연기를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가 오지 않을 때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거친 말투 때문에 오해를 자주 산다는 김서형은 이날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 더 이상 ‘아내의 유혹’에서의 악역을 기대하는 캐스팅은 싫다며 "1년이고 2년이고 쉬게 되면 걱정이 되겠지만 손을 빨게 되더라도 도전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당찬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잘해온 거 같은데 왜 저를 주연으로 찾아주는 데가 없죠?(웃음) 에너지가 넘쳐서 늘 도전하는 새로운 역할을 찾는 거 같아요. 언젠가는 주연으로 극을 이끌어보고 싶은 욕심이 큽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따뜻한 카리스마 발휘 "고마운 작품"
선 굵은 악역 이미지 그만하고 싶어
넘치는 에너지 새로운 도전으로 소비

‘인턴’ ‘탐정’, ‘사도’ 꺾고 역주행

‘인턴’, 힐링영화 입소문 흥행
‘탐정’, 개봉 11일째 200만 돌파

인턴

탐정: 더 비기닝

추석 시즌 극장가 흥행을 이끌었던 ‘사도’가 박스오피스 정상에서 내려왔다. ‘인턴’과 ‘탐정: 더 비기닝’은 역주행 흥행으로 뒷심을 발휘 중이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사도’는 지난 3일 ‘인턴’에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를 차지했다. 이어 4일에는 3위로 다시 한 계단 하락했다. 2위는 ‘탐정: 더 비기닝’이 차지했다.

로버트 드 니로, 앤 해서웨이 주연의 ‘인턴’은 ‘힐링영화’라는 입소문을 타고 흥행 역주행 중이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인턴’은 개봉 당일 박스오피스 4위로 첫 등장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3위로 한 계단 상승했으며 2일에는 2위로, 3일에는 마침내 1위에 올랐다. 4일까지의 누적 관객수는 146만3603명이다.

‘탐정: 더 비기닝’도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4일에는 16만8004명의 관객을 모아 ‘사도’를 제치고 2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누적 관객수도 개봉 11일째에 200만4933명을 돌파했다.

이번 주에도 신작들이 대거 개봉한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SF영화 ‘마션’, 이선균·김고은·임원희 주연의 범죄 추리극 ‘성난 변호사’, 휴잭맨 주연의 가족영화 ‘팬’ 등이 8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글날 연휴 동안 펼쳐질 극장가 흥행 대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 기자 solanin@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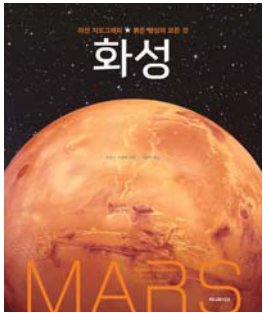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새로 나온 책

화성-마션 지오그래피: 붉은 행성의 모든 것

허니와이즈/자일스 스패로 지음·서정아 옮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화성에 소금이 녹은 물이 하천처럼 흐르고 있다는 증거를 알아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의 화성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발견이었다. 오는 8일에는 화성에 표류하게 된 우주인의 이야기를 그리는 SF영화 '마션'도 개봉한다. 바야흐로 화성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화성-마션 지오그래피: 붉은 행성의 모든 것'(이하 '화성')은 최초로 공개되는 화성의 매력적인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10여 차례의 우주 탐사 임무에서 얻은 경이로운 사진들로 미지의 세계 화성의 모습을 담았다. 화성 탐사선이 보내온 화성의 다채로운 모습과 그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화성에 대한 수수께끼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청바지 돌려 입기

문학동네/앤 브래셰어스 지음·공경희·부선희 옮김

미국의 청소년 문학 작가 앤 브래셰어스의 대표작이다. 4명의 10대 소녀의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3권으로 이뤄진 이 책은 전 세계 19개국에 출간, 번외편을 포함해 시리즈 전체 9백만 부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2009년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돼 흥행을 기록했다.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

한길사/박완서·신경숙 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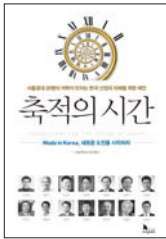
대한민국 최고 글쟁이, 그림쟁이들의 음식 이야기를 모았다. 소설가 박완서와 신경숙은 소박한 음식의 추억을 전한다. 만화가 홍승우는 청국장에 얽힌 아픈 기억을 담았다. 각양각색의 음식 이야기 속에는 진솔한 삶이 담겨져 있다.

불안의 책

문학동네/페르난두 페소아 지음·오진영 옮김

20세기 유럽 문학을 대표하는 포르투갈 국민 작가 페르난두 페소아의 대표작이 포르투갈어 완전 완역본으로 출간됐다. 페소아가 1913년부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약 20년의 세월 동안 틈틈이 공책이나 쪽지에 기록한 단상을 모은 고백록이다.

축적의 시간

지식노마드/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음

서울공대 26명의 석학이 한국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 산업계의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돌파해야 할 관문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지속적인 투자와 시행착오를 통해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설파한다.

간디와의 대화-어떻게 살 것인가

스타북스/김진 지음

간디의 비폭력 평화 운동이 절실한 요즘, 그의 삶과 사상의 핵심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저자가 10여년 동안 인도에서 활동하며 연구한 간디의 삶과 사상을 '가상대화'의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간디가 말하고 실천한 다양한 주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야생 탐험왕

지에밥/크리스 옥스래드 지음·에바 사진 그림·이종은 옮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야생에서 하늘과 바람, 나무와 돌들이 전해주는 과학의 원리를 깨닫도록 구성한 책이다. 지도와 나침반을 읽고 하늘을 보며 날씨를 예측하는 등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TV 하이라이트

오일 파스타 완전 정복

◆ tvN '집밥 백선생'

오후 9시40분

이탈리아 요리하면 떠오르는 '파스타'를 만들기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백종원이 나섰다. 파스타를 라면 끓이는 것만큼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선보인다. 그중에서도 한 번 만들어두면 파스타 뿐만 아니라 별미 요리까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만능 오일과 함께 '오일 파스타' 완전 정복하는 법을 알려준다. 파스타에 빠질 수 없는 피클을 숙성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비법도 공개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 SBS '불타는 청춘'

오후 11시15분

원년 멤버였던 홍진희가 오랜만에 컴백한다. 홍진희는 변함없는 애교와 콧소리로 처음 만난 서태화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내며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0시50분

악동 강남의 장난에 수없이 당해왔던 김정훈은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와 손잡고 복수극을 계획한다. 눈치가 빠른 강남을 속이기 위한 '몰래카메라' 대작전을 실행한다.

◆ JTBC '내 나이가 어때서'

오후 9시30분

어른보다 더 어른 같은 돌직구 어린이 위원단은 우리나라 역사를 빛낸 6인의 위인들을 추천한다. 위원단은 동심 어린 눈으로 상상한 대통령의 조건과 하루 일과를 그려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일 (화)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홈스토리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꿈 꾸는 학교, 나를 찾다 11:55 바른말 고운말 (재)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발칙하게 고고 (재)	05:00 MBC 뉴스 05:10 특선 어부의 만찬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충전 힐링 라이프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김제동의 톡투유 (재) 10:15 마녀사냥 (재) 11:45 비정상회담 (재)	05:50 나는 자연인이다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현장르포 특종세상 (재) 11: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5:4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00 명단공개 (재) 06:4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8:10 응답하라 1994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명단공개 (재) 11:4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05:00 큐티 06:00 놀랍지 아니한가 06:30 그림있는 집 07:00 권은순의 리빙앤스타일 07:30 야무진 공방 (재) 08:00 디자인 매거진 룸 S2 09:00 류승주의 건물탐방 (재) 09:30 자신만만 인테리어 (재) 10:00 스타 뉴스 11:00 그림있는 집 S2 11:30 어반 레전드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4:00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15:55 튼튼생활체조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광복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0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재) 13:10 체인지업 도시탈출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VJ 특공대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TV속의 TV 13: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14:05 내꺼야 폴록 (재) 14: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15:00 MBC 뉴스 15:10 꼬마돌 도도 15:40 통일전망대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육룡이 나르샤 (재)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00 SBS 뉴스 15:10 프로야구 중계석 (재) 16:00 꾸러기탐구생활 스페셜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로봇 트레인	13:1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00 문제적 남자 (재) 14:30 두번째 스무살 (재) 15:50 두번째 스무살 (재) 17:10 명단공개 (재)	12:00 캐리비안 드림하우스 12:30 플리마켓 리폼대작전 13:00 싱글 생활백서 (재) 14:00 이색적인 이사 (재) 14:30 우리집을 살려줘 (재) 15: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15:30 적중창업 16:00 류승주의 건물탐방 (재) 16:30 내 남자의 목공 (재) 17:00 와타나베의 건물탐방 S2·3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이웃집 찰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한반도의 기억, 세계의 기억이 되다 23:00 KBS 뉴스라인 23: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24:35 아시아 영화의 힘	18:00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50 다 잘될 거야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1 대 100 22:00 발칙하게 고고 23:10 우리동네 예체능 24: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려한 유혹 23:10 특집 PD수첩 24:15 MBC 뉴스 24 24:25 MBC 100분 토론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SBS 뉴스토리 22:00 육룡이 나르샤 23:15 불타는 청춘 24:35 나이트라인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내 나이가 어때서 22:5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24:15 비정상회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21:50 휴먼다큐 사노라면 23:00 엄지의 제왕 24:40 엄지의 제왕 (재)	18:20 집밥 백선생 (재) 19:40 오 마이 갓 20:40 현장토크쇼 TAXI 21:40 집밥 백선생 23:00 특선영화 쎄시봉 (재)	18:00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 19:30 우리집을 살려줘 20:00 자신만만 인테리어 20:30 싱글 생활백서 21:00 야무진 공방 21:30 그림있는 집 S2 (재) 22:30 내 남자의 목공 23:00 이색적인 이사 (재) 24:00 캐리비안 드림하우스 (재) 24:30 DIY 프로젝트 (재)

추신수 첫 우승… 텍사스, 서부지구 정상에

타율 0.276·홈런 22개로 시즌 마감
동부지구 1위 토론토와 디비전 대결

추신수(왼쪽)가 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뒤 팀 동료 애드리안 벨트레와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의 텍사스가 생애 첫 지구 우승을 경험했다.

추신수는 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했다.

이날 3타수 1안타를 치고 볼넷 2개, 2득점을 기록하며 정규리그를 마쳤다. 5년 만에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 타이(22개)를 기록했다. 2015년 정규리그 성적은 타율 0.276(555타수 153안타), 출루율 0.375, 장타율 0.463, 득점 94개, 타점 82개로 마무리했다.

3-2로 불안한 리드를 지키던 7회 무사 1, 2루에서는 왼손 구원 투수 세사르 라모스에게서 볼넷을 골랐다. 무사 만루의 황금 찬스에서 텍사스는 프린스 필더의 밀어내기 볼넷, 애드리안 벨트레의 내야 강습 안타, 미치 모어랜드의 희생플라이, 조시 해밀턴과 엘비스 안드루스의 적시타를 묶어 6점을 뽑아내며 승부를 갈랐다. 이날의 승리로 4년 만에 지구 우승 타이틀을 차지했다.

텍사스가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한 건 1994년 양대리그가 각각 3개 지구 체계로 개편된 이래 1996년, 1998~1999년, 2010~2011년에 이어 6번째다. 지난 2000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뒤 2008년부터 풀타임 메이저리거로 활약한 추신수는 생애 처음으로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지난 1일 리그 와일드카드를 확보했던 텍사스는 포스트시즌 2단계인 디비전시리즈(5전3승제)에 직행해 8일부터 토론토 블루제이스(동부지구 1위)와 대결한다.

텍사스는 토론토를 상대로 올 시즌 다소 고전했다. 6월 27~29일 방문 3연전에서 1차전 2-12 대패 등 1승 2패로 밀린 바 있다. 8월 26~28일 홈으로 불러들여 설욕을 노렸지만 2차전 4-12 완패를 포함해 역시 1승 2패를 기록했다.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만날 수 있는 캔자스시티를 상대해 4승 3패를 거뒀다. 5월 12~15일 치른 홈 4연전에서 2승 2패를 주고받았고, 6월 6~8일 방문 3연전에선 2승 1패로 위닝시리즈를 만든 좋은 기억이 있다.

추신수도 소속팀을 따라 캔자스시티에 강했고, 토론토를 상대해 다소 고전했다. 캔자스시티전은 32타수 12안타로 타율 0.375에 홈런 2개를 쳤고 타점도 7개 챙겼다. 토론토전에서는 28타수 7안타, 타율 0.250을 기록했다. 홈런은 없었고, 2타점에 그쳤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슈틸리케 "쿠웨이트전, 승점 6점짜리 경기"

태극전사, 예선전 위해 출국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 쿠웨이트와 원정에 나서는 축구 대표팀의 울리 슈틸리케 감독과 코칭스태프, 선수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태극전사들이 2018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쿠웨이트와의 경기를 위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출국 직전 취재진과 만난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쿠웨이트 전은 승점 6점짜리 경기"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미얀마나 라오스 등 항상 어느 경기든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없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조 1위와 2위의 싸움"이라며 쿠웨이트 전을 앞둔 각오를 밝혔다.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에서 한국과 같이 3승을 달리고 있다. 다만 골득실차에 밀려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아시안컵에서의 쿠웨이트 전에 대한 기억은 그다지 좋지 않다"며 "상당히 힘든 경기였고 쿠웨이트도 레바논 원정에서 승리한 팀이라 이번에도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앞서 지난 1월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쿠웨이트에 1-0으로 승리한 바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손흥민(토트넘)과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이 부상으로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대체 선수를 발탁하지 않았다. 그는 "쿠웨이트전은 필드 선수만 18명을 데려가고 경기장에서 교체 선수까지 합치면 14명을 활용할 수 있다"며 "21명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 선수를 발탁하면 경기에 못 뛰는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자메이카 전에서는 필요하면 추가 발탁하는 것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팀은 8일 오후 11시55분(한국시간) 쿠웨이트시티 국립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일전을 치른 뒤 13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자메이카와 평가전을 갖는다. /장병호 기자 solanin@

'기성용 풀타임' 스완지, 토트넘과 무승부

기성용이 풀타임을 소화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시티가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과 무승부를 거뒀다.

스완지시티는 5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 경기에서 프리킥으로 2골을 넣은 토트넘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맹활약을 막지 못하고 토트넘과 2-2로 비겼다.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기성용은 상대의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한 차례 무산시키는 등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후반 28분 역습 상황에서 골지역 오른쪽으로 쇄도해 들어가던 클린턴 은지가 공을 잡기 직전 과감한 태클로 토트넘의 득점 찬스를 무산시켰다.

지난 라운드 맨체스터시티전에서 발을 다친 토트넘의 손흥민은 결장했다. 토트넘은 5라운드 선덜랜드전부터 이어진 연승행진이 3경기에서 끝났다.

스완지시티는 전반 16분 헤페르손 몬테로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에 안드레 아예우가 헤딩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토트넘은 11분 뒤 에릭센의 그림같은 프리킥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전반 31분 해리 케인의 자책골로 기세가 꺾였다.

다행히 토트넘은 후반 20분 에릭센이 또 한번 프리킥 골을 터뜨려 패배를 면했다. /하희철 기자

기성용(왼쪽)이 5일(한국시간) 웨일스 리버티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경기에서 토트넘의 해리 케인과 볼경합을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넥센 히어로즈

고척스카이돔에 새 둥지

넥센 히어로즈가 목동구장을 떠나 국내 최초 돔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돔(사진)에 새 둥지를 튼다.

서울시와 넥센 히어로즈 구단은 내년 3월 프로야구 정규시즌부터 2017년까지 고척돔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넥센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 수차례 만남으로 내용을 조율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넥센 히어로즈는 목동야구장과 마찬가지로 1일 대관방식으로 고척돔구장에서 연간 100경기 정도를 치르게 된다. 돔야구장 우선 사용과 돔구장 매점 등 수익시설 일부를 넥센 측이 쓸 수 있다. /장병호 기자

날씨

생활 영어

Is this your new car?

A: Is this your new car? Awesome!

B: Yes, I got it finally.

A: Is that a new Sonata?

B: Yes. It was on sale. I got a 10 percent discount.

A: You have a good eye for a bargain.

B: Yeah, I was lucky. Is that your motorcycle?

A: Yes, that's mine. I bought it for commuting.

B: Cool. I love it.

이게 당신의 새 차인가요?

A: 이게 당신의 새 차인가요? 참 멋지군요!

B: 네, 드디어 구입했어요.

A: 그게 신형 소나타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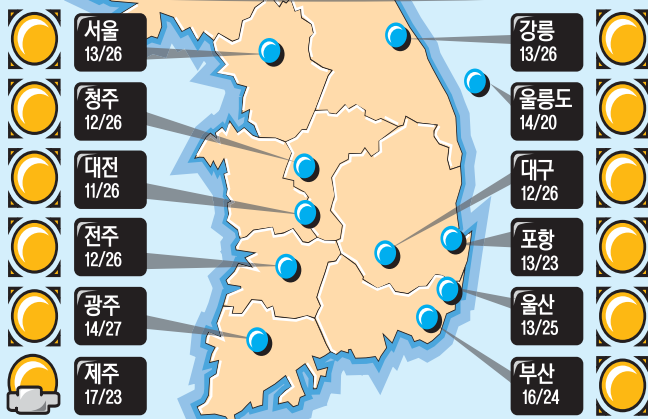
B: 네, 세일 중이었거든요. 10% 할인 받았어요.

A: 저렴한 물건을 고르는 안목이 있으시네요.

B: 네, 운이 좋았죠. 저게 당신의 오토바이인가요?

A: 네, 제 것입니다. 출퇴근용으로 샀어요.

B: 근사해요. 맘에 들어요.

* be on sale : 할인 행사 중이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7		3					
		2	5	6			7	
					1		8	
	6	3		1		5		
	4			2			6	
		9		3		4	1	
	3		8					
	1			7	6	8		
					3		9	7

9	2		5	8				
	5				7			
7	4		2	1				
		9	3				2	
		5		2		3		
	7				1	5		
				9	4		3	1
			7				9	
				5	3		6	4

스도쿠 정답

4	7	1	3	8	2	9	5	6
8	9	2	5	6	4	3	7	1
3	5	6	7	9	1	2	8	4
7	6	3	4	1	8	5	2	9
1	4	8	9	2	5	7	6	3
5	2	9	6	3	7	4	1	8
6	3	7	8	5	9	1	4	2
9	1	4	2	7	6	8	3	5
2	8	5	1	4	3	6	9	7

9	2	1	5	8	6	4	7	3
8	5	6	4	3	7	9	1	2
7	4	3	2	1	9	6	5	8
4	8	9	3	7	5	1	2	6
6	1	5	9	2	8	3	4	7
3	7	2	6	4	1	5	8	9
5	6	7	8	9	4	2	3	1
1	3	4	7	6	2	8	9	5
2	9	8	1	5	3	7	6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결혼과 앞으로의 진로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 매진… 만혼 이룰듯

자몽킴 여자 85년 6월 8일 음력 22시 30분

Q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민이 있어서 이곳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남자친구가 없었습니다. 그전에 5년 동안 사귄 남자 친구가 있었고요.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기가 힘드네요. 반려자를 만나고 싶은데 쉽지 않을 거 같아 걱정입니다.
그리고 진로 적으로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이 여러 직종에서 일도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집의 권유도 있고 저도 관심이 생겨서 공인중개사를 해볼까 하는데 어떨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

A 사주는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 형상'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있고 또 한편 신비한 사상이나 학술에 상당한 관심이 있으나 몰두하지 않습니다.
역학 용어로 직업 운에 충살(沖殺:충돌하는 불리함)이 가중 돼 있고 편재(偏財:내가 극하는 오행)가 편인(偏印:나를 생하는 오행)을 제어하기 때문에 한곳에 안착을 못하고 여러 가지에 손을 대 보았지만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이성 운에 대해서는 자좌관고(自座官庫:앉은 자리에 남편을 깔고 앉은 형상)로 남편 덕이 박 하므로 만혼(晩婚:늦게 결혼)이나 초혼의 실패한 남자를 만나야 흉함을 면한다고 봅니다.
공인 중개사시험은 합격할 수 있는 운이 있으며 부동산 계약과 같은 문서운이 승발 하고 있으므로 2년 계획을 세워 중개사 시험에 힘을 다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딴 생각마시고 'T쇠막대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정성으로 올인 하세요. 귀하의 경우 인터넷 강의가 더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 반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까지는 안정이 다소 어려우니 알바 후에는 밤 11시까지 책상에 앉아 컴퓨터와 교재를 붙잡으셔야 하며 컴퓨터의 모니터는 눈높이와 맞추세요.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출제되었던 부분을 교재에 빨간색 펜으로 표시를 하여 중요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시고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버리는 식으로 과목 양을 줄여나가세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앞으로 1년에 총 6~7번 독파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세요.
누구나 인생의 힘든 고비는 있습니다. 이성을 생각하면 정신만 복잡해지니 그럴 때마다 왜 이 공부를 시작했는지 초지일관 목표를 상기하며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6일 (음 8월 24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60년생** 술집 가까이 가지 마세요. **7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84년생** 시기가 맞아 떨어져 이루려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49년생 하는 일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61년생** 만사가 대길 할 운세입니다. **73년생**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실력을 갖추세요. **85년생** 능력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50년생 옳지 못한 생각은 가지지 마세요. **62년생** 실업자 생활을 청산할 때가 왔습니다. **74년생** 밖으로 나가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86년생** 대수롭지 않은 병이나 젊을 수록 조심하세요.

51년생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볼 수 있겠습니다. **63년생**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 막힘이 없습니다. **75년생** 불안한 거래이더라도 이루어집니다. **87년생** 잃었던 것을 찾게 됩니다.

52년생 화해로 해결하려 하지만 어렵습니다. **64년생**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도와주는 이가 없겠습니다. **76년생** 최악의 상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88년생** 부채로 부도 위험이 있겠습니다.

53년생 업무를 볼 때 주변의 반대가 있겠습니다. **65년생** 분수에 넘치지 않는 행동만 하세요. **77년생** 복록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89년생**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54년생 유익한 거래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66년생** 원수로 돌아설 듯하나 결국 화해합니다. **78년생**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90년생** 좋은 취직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55년생 아마도 여성의 도움이 있겠습니다. **67년생** 분실한 물건이 있다면 여성의 소행일 것입니다. **79년생** 귀인은 동쪽이나 북쪽 방향에 있습니다. **91년생** 합격 수가 있습니다.

56년생 계획성 없이 일을 해 나가니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68년생** 오늘 하루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80년생** 위독한 상태까지 가게 되니 주의하세요. **92년생**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57년생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세요. **69년생**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81년생** 가까운 사람이 곁을 떠납니다. **93년생** 상대방의 마음이 이미 떠났습니다.

58년생 친구와 싸우지 마세요. **70년생** 모든 일이 발전 일로에 있습니다. **82년생**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최적 기입니다. **94년생** 윗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59년생 쉽게 찾을 수 없으니 단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71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83년생**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95년생** 우정을 돈독히 하세요.

부산국제영화제, 이제는 작품성을 생각할 때

양경미의
문화톡

제20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는 규모와 성격 면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감독들과 스타들이 대거 참석했고 75개국에서 304편의 영화가 초청되었다. 또 아시아 영화제작자와 유통업자가 부산에서 만나 영화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영화제를 통해서 아시아지역 영화시장을 활성화시켰고 이를 통해 한국영화가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아시아와 한국영화를 제작하는 데에 있어 펀드를 통해 투자자를 모으는 데도 공헌했으며 부산에 영화의 전당이 건립되는 등 지역영화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한 채 정체돼서는 안된다.

이제는 경쟁을 통해 영화의 작품성을 높여야 한다. 예산이나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의 편수 등 규모면에서 보면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영화의 작품성에서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 영화제의 초기에는 규모가 중요하지만 그 단계를 지나면 작품성이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는 지금도 뛰어난 작품을 참여시키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다. 그만큼 영화제의 가치는 작품성과 결부된다. 그동안 부산국제영화제는 주로 초청에 의한 참가에 의미를 부여했다. 경쟁을 통한 작품 수상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영화제는 왜 존재하는가. 이미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영화를 위해서는 영화제가 필요 없다. 작품성이 높거나 예술성이 우월한 반면 흥행의 기회가 적은 영화나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영화제가 필요하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는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환경을 생각하면 부산국제영화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영화산업은 제작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독과점화 되어 있다. 이런 영화산업 환경에선 예술성과 작품성이 높은 영화가 제작되기 어렵다.

또 부산국제영화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영화산업이 발전하고 영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베를린이나 칸느 등 다른 국제영화제에서도 정부의 지원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만 지나치게 의지할 경우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작품성 추구 역시 힘들어진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상영을 두고 부산시와 영화제 측이 대립한 끝에 올해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고 영화제 운영에 대해 부산시의 감사가 강화되었다. 작년 영화제의 총예산은 123억원으로 이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금은 75억원 전체예산의 60%를 상회한다. 정부지원금의 비중이 높다보니 영화제의 인사나 운영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산국제영화제는 민간기업의 후원금 비중을 늘려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필요가 있다. 좀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국내외의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전략도 필요하다.

'마약 사위' 논란이 부른 사법부의 민낯

기자 수첩
연 미 란
<사회부>

한 남성이 '마약 사위'라는 이름으로 연일 논란이다. 이 남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15차례 가량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3년 구형을 받은 이 남성은 초범이라는 점, 반성을 한다는 점이 참작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단순 마약 사건으로 마무리되던 이 사건은 지난 9월 법무부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라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남성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다.

'마약사위' 논란은 피감기관에 대한 질책으로 시작해 국감장의 흔한 여야정쟁으로 비화, 사법부의 민낯을 드러내는 등 총체적 난국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부터 항고 포기, 변호인 선임과정에서 전관예우와 전화변론까지 사법부의 오랜 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과 그를 둘러싼 사법부의 숱한 의혹들은 쟁점일 뿐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이씨를 둘러싼 검찰의 구형량과 재판부의 선고 형량에 대한 온도차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투약 횟수와 횟수가 길다는 점을 들어 초범이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여론은 차갑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라면 여론은 사법부의 봐주기 논란을 사실로 단정짓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이 이 같은 반응을 부른 셈이다. 사법부는 여야 정쟁의 피해자가 아니다. 이번 논란은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다름 없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3%)은 사법제도에 대해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42개국 중 39위로 이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40위)와 유사한 수준이다. 사법부가 모두 나서 초라한 성적표에 대한 진단에 나서야 할 때다. 멀쩡하게 법이 있는 나라에서 무법지대 평가는 굴욕아닌가.

인사

◇광주매일신문 ▷기획관리실장·이사 박준수 ▷광고마케팅본부장·이사 김경윤 ▷경영사업본부장 이경수 ▷편집국장 박상원 ▷정치부장 겸 논설실장 김종민 ▷사회부장 오성수 ▷경제부장 박연오 ▷문화체육부장 박희중 ▷지역사회부장 박은성 ▷정치부 부장대우 최권범 ▷문화팀장 진은주 ▷편집부 차장 윤재광 ▷사진부 차장대우 김애리 ▷사회부 차장대우 오경은 ▷업무국 부국장 이성준 ▷기획관리실 부장 신재열 ▷광고영업국 국장 김재홍

◇매일일보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나정영

◇중부일보 ▷편집부 부국장 박민용

◇한겨레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정남구 △편집국 ▷디지털부문장 정재권 ▷총괄·기획에디터 백기철 ▷경제에디터 안재승 ▷정치에디터 임석규 ▷사회에디터 김영희 ▷사진에디터 강창광 ▷국제에디터 박현 ▷지역에디터 권혁철 ▷문화스포츠에디터 박민희 ▷라이프에디터 권은중 ▷방송에디터 도규만 ▷디자인에디터 김경래 ▷정치데스크 신승근 ▷정치디지털데스크 김보협 ▷사회데스크 김회승 ▷사회디지털데스크 이종규 ▷퍼블릭상무장 이천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동향분석센터장 조계완

◇비즈니스플러스 ▷대표이사 발행인 이태석 ▷부사장겸 편집국장 윤경용

◇IBK투자증권 △전무 승진 ▷WHOLESALE 사업부문장 최인섭

◇가톨릭관동대학교 ▷입학처장 김정아 ▷인재개발원장 겸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유승동 ▷취업인턴십지원센터장 이금원 ▷국제교류교육센터장 이재록 ▷기초교육대학 부학장 강우원

◇고려대 ▷정경대학장 겸 정책대학원장 김균 ▷도서관장 겸 중앙도서관장 겸 외국학술지지원센터장 김성철 ▷영재교육원장 김성도 ▷자유전공학부장 박세민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박진배

기사제보=02)721-9832

社說

농협은 자존심을 가져야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는 물론 영농자금의 조달에 이르기까지 농협 없이 우리나라 농업은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렵다. 게다가 농협은 수백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금융기관이다. 은행은 물론 보험 증권 등 여러 분야에 진출해 있다. 농업이 중심 금융기관으로서, 그리고 거대자산을 보유한 금융사로서 2중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협은 다른 금융사보다 더욱 건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을 잘 이해하고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들이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의 경영이 잘못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협이 어느 새 '낙하산집합소'가 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 금융관련 농협계열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관료 출신 인사가 모두 1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융감독원 출신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로비용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알맞다.

과거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출신인사를 영입했으나 요즘은 그런 관행이 대부분 사라졌다. 그런데도 농협은 아직까지 그런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더욱이 6명은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 정부의 '힘있는 부처'에서 '모셔온' 인사들이다. 특히 전직 검찰총장까지 영입해 놓았다. 농협이 금융기관으로서 농업금융이라는 본업을 충실히 한다면 그런 권력기관 출신인사들이 왜 필요한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농협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직당국의 수사대상이 되어왔고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의 배경과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무리한 수사라는 인상을 준다. 그렇지만 그것도 권력기관 출신인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치르는 대가일지도 모른다.

농협은 하루 빨리 스스로 독립적인 경영능력과 자존심을 기르고 '낙하산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불미스러운 수사대상에 오르는 일도 막을 수 있다.

"폴크스바겐 피해 보상하라"

소비자 119

소비자단체 입장 발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은 5일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와 관련, "반드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폴크스바겐이) 의도를 가지고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는데 소비자의 실망과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구입 당시 기대했던 성능의 차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긴급 조사에 착수해 소비자들에게 배기가스를 낮게 조작하는 유사한 장치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부 당국도 배출가스와 연비 관련 개선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폴크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국내 일부 소비자들이 소송 제기를 추진하는 가운데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는 1일 본사의 기술적인 해결책 개발과 테스트가 끝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에도 조작 장치가 장착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예진 기자 green@